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3 **3**

# 가자! 인천으로

2013 실내·무도아시아게임

- 대회기간 : 2013. 6. 29 ~ 7. 6(8일간)
- 대회장소 : 인천광역시 일원
- 경기종목 : 당구, 볼링, 체스·바둑, 댄스스포츠, 풋살, 카바디, 킥복싱&무에타이, 크라쉬, 25m쇼트코스 수영
- 주 최 :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 주 관 : IAGOC(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주 최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과 소셜웹([social.incheon.go.kr](http://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굿모닝인천〉의 못다 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 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태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사진 더 보기 기능은 태블릿 PC에서만 가능)

## Cover Story



3월, 봄을 알리는 첫 전령은 매화입니다. 붉은 매화를 한글로 형상화했고, 초록색은 한자로 인천을 표현한 것으로 숲을 의미합니다. 인천이 엄동의 겨울을 이겨낸 봄 매화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충 作\_m.010-5131-3146



## CONTENTS

- 08 **Green Incheon** 도시형 식물농장
- 12 **인천 대학가** 인하대 후문
- 18 **Enjoy Incheon** Guitar King
- 22 **♥ Incheon** 인천시 홍보대사
- 26 **탐방** 인천환경공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 30 **아름다운 사람** 웨라톤 인천 이상훈
- 32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밥집** 검암한옥 장어집
- 36 **Culture News** 뮤지컬 '셜록 홈즈-앤더슨가의 비밀' 외



- 38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산업화시대의 인천
- 40 **시정뉴스** 인천으로 기업들이 몰려온다 외
- 44 **의정뉴스**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46 **생활정보** 울목도서관 3월 문화행사 외
- 50 **이달의 서평** 스티브 잡스의 이메일 박스 외
- 51 **인천 사는 이야기** 영종도의 아침 외
- 52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인천대공원
- 58 **모닝 커피 한잔** 장금석 시 소통기획관실



## 08 도심에 터지는, 초록빛 싱그러움

초록의 계절 3월, 농부의 마음으로 식물 가꾸는 일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 최근 햇빛과 흙이 없이도 LED 조명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도시형 식물농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꾸는 기쁨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마음이 절로 싱그럽다.

## 18 '여섯 줄 은하수'의 음울에 빠지다

악기가 흔치 않던 시절. 집집마다 통기타는 필수품이었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부는 안하고 기타끼고 갱깁 거리는 자식을 모습에 속깨나 태웠다. 경인방송이 주관한 '기타킹'대회는 기타 꽤나 친다는 밴드, 뮤지션, 골방 기타 고수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였다.



##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 인천과 통(通) 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보고 느낀 점, 평소 인천에 대한 생각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 인천시 미디어 |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 인천시 SNS |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blog.naver.com/flyic)

social network  
twitter  
me2day  
blog  
facebook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독자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세요.

## 인천만의 문화, 발전시키길

독자. 김수남



### 벌써 다음 호가 기다려져

항상 좋은 정보와 유익한 기사를 전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번 호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인천의 오래된 설령탕집'이었습니다. 60여 년 역사의 설령탕은 맛 만큼이나 정성도 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회가 되면 가족과 함께 인천을 찾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호가 기다려집니다.

송국화 전북 순창군

### 인천은 대한민국 역사의 바로미터

새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인천 정명 600년' 시리즈를 잘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부평공장에서 일한 기억이 있기에, 당시 인천의 기억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개항과 근대화를 거쳐 국제화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천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나 온 역사를 말하는 산증인이자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광열 대전 중구

### 구도심 정체성을 보존하며 개발하길

전통시장에서 설맞이하는 기사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다음에는 동인천의 카페들만 특집으로 모아서 소개해주세요. 저는 동인천이 활기를 되찾기 바라는 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오래된 풍경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구도심의 정체성을 보존하며 도시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희 남구 용현2동

###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함께 할 시간

〈굿모닝인천〉을 본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책에서 다룬 거리, 풍경, 먹거리, 볼거리가 어느덧 눈에 익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인천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도시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을 함께 한 〈굿모닝인천〉이 앞으로도 제 눈과 귀와 발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진 계양구 효성동

### 전통시장을 사랑해주세요~

전통시장에서 설맞이를 하도록 안내해준 기사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통시장에 새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형마트에 밀려 동네 작은 가게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웃을 위하고 가게도 살리는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어떨까요.

김은수 부평구 산곡동

### 군대로 전해 온 반가운 고향 소식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굿모닝인천〉을 받아보고 고향 인천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굿모닝인천〉을 정기구독을 하면서 고향 인천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채준우 경기도 연천군

김수남씨는 여행작가로, 40여 년 가까이 살아 온 인천을 떠나 지금은 고향 선운산 뒷자락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일부이니, 언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한다.

**인천과의 인연** 고향은 아니지만 인천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다. 연수구에서 '미추홀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해 3년간 운영하기도 했다. 여행작가라는 직업 때문에 전국을 다니지만 항상 인천을 고향처럼 여기며 살고 있다.

**타지에서 만나는 〈굿모닝인천〉** 오래된 고향 친구와 같다. 추억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새로운 정보도 귀뜸해 준다. 〈굿모닝 인천〉을 읽으면, 옛 앨범을 들춰보는 듯한 반가움과 이웃의 조잘대는 수다 속으로 빠지는 듯한 아련한 즐거움을 느낀다.

**〈굿모닝인천〉 어떤 점이 좋다** 옛 추억이 담긴 글과 사진을 특히 좋아한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의 이야기를 듣고 외로움을 덜어내 듯, 복잡한 세상에 지친 어른이 어릴 적 추억을 비타민 삼아 힘을 내듯이.

**인천시민, 인천에 하고 싶은 말** 연안부두, 월미도, 송도, 제물포... 인천하면 보통 바다와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린다. 유입인구가 늘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개발되면서 인천의 외형은 커졌지만 그 문화적 끈기는 외형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항구도시도 좋고, 국제도시도 좋지만 문화도시로서 인천이 더 성장하길 바란다. 인천만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인천시민과 〈굿모닝 인천〉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과 통하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독자 인터뷰**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어디일까지** 사진 속 인천의 명소를 맞춰보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재래시장상품권 1만원권 1장, 인터뷰는 3장)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 여기가 어디?

## 인천의 명소를 맞춰 보세요

힌트 : 세계로 오가는 출입문입니다.

※ 네 분을 선정하며 접수는 우편과 메일(bluelou7@korea.kr)로 받습니다.

## 지난 호 정답자

허혜인 부평구 산곡동 / 김민진 연수구 송도동  
송은주 계양구 박촌동 / 윤현호 남동구 만수동

**버스 뒷문 승차를 없애주세요.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도시에 걸맞은 행동이 아닌데도,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문으로 승차하고 뒷문으로 하차하기 등 대중교통 에티켓 지키기' 홍보스티커를 제작 버스 내부에 부착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전 업체에 통보해 스티커를 붙이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하차문 승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서울시에서 시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소카(Socar)라는 카 셰어링을 인천에서도 도입하면 어떨까요? 인천의 교통상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카 셰어링 서비스는 시민들이 집 주변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와 우리시의 경우 서울과 연계되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카 셰어링의 시장이 제한적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청라로봇랜드를 올해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안 되서 힘들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는 2012년 12월 27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2013년 상반기 내 허가절차를 완료한 뒤 기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건물 착공을 하기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11월에서 1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공식과 착공의 의미를 혼동해서 기사가 나간 걸로 판단됩니다. 상반기 내 기공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예술고 송도 6·8공구 이전이 확정됐나요. 뉴스를 다 살펴 보아도 정확히 확정이라는 말이 없네요.**

송도 6, 8공구 내 인천예술고 이전부지는 현재 매립이 완료되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진입로, 부지조성 등)의 설치는 2016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 예술고의 이전 시기는 기반시설이 완료된 이후인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월미은하모노레일 안전진단을 마무리짓겠다고 하셨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나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시 교통공사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안전성 검증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안전성검증용역 결과가 나오면 동 용역결과에 의거 3/4분기 안에는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운행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동인천역 버스정거장에 택시와 승용차들의 불법주정차로 특히 퇴근 시간대에 버스타기가 너무 힘들습니다.**

단속을 요청하신 지역은 출퇴근 시간대에 정류소 내의 질서유지 요원을 상시 배치하던 것이었으나, 현재 여러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배치토록 하겠으며, 버스전용차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교통질서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인천 버스정류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CCTV로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심에 터지는, 초록빛 싱그러움

초록의 계절 3월. 농부의 마음으로 식물 가꾸는 일에 꼭 빠져보는 건 어떨까. 최근 도심의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이용해 내 손으로 직접 농작물을 기르는 도시농부가 늘고 있다. 햇빛과 흙 없이도 LED 조명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도시형 식물농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꾸는 기쁨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마음이 절로 싱그럽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임운석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부평 ‘도시농업공원’

#### 텃밭에서 일구는 소박한 꿈

부평구 십정사거리에 있는 도심의 자투리 공간. 많은 사람들이 흙을 매만지고 맑은 땀방울을 흘리며 농작물을 가꾸는 데 한창이다. 어른들이 농사일에 여념 없는 사이, 아이들은 맨발로 보드라운 흙을 한 발자국씩 밟았다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채소가 얼마나 자랐는지 들여다보며 도심의 나래를 펴기도 한다.

개밭을 앞둔 유흥지인 이곳은 지난 2011년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농업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사람들은 이 안에서 농부의 마음으로 정성스레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다. 미나리, 방울토마토, 상추 등의 채소는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고 쑥쑥 자라 가꾸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 초보농부라도 전문가들로부터 농사일을 배울 수 있어 큰 어려움 없이 농작물을 가꿀 수 있다.

꼭 주변에 너른 공간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최근 회색빛 도심에 싱그런 초록빛을 퍼트리는 ‘도시형 식물농장(Plant Factory)’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 도시형 식물농장이란 LED 조명으로 식물에 24시간 빛을 담뿍 전하고, 컴퓨터로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양분을 제공하며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식물을 계획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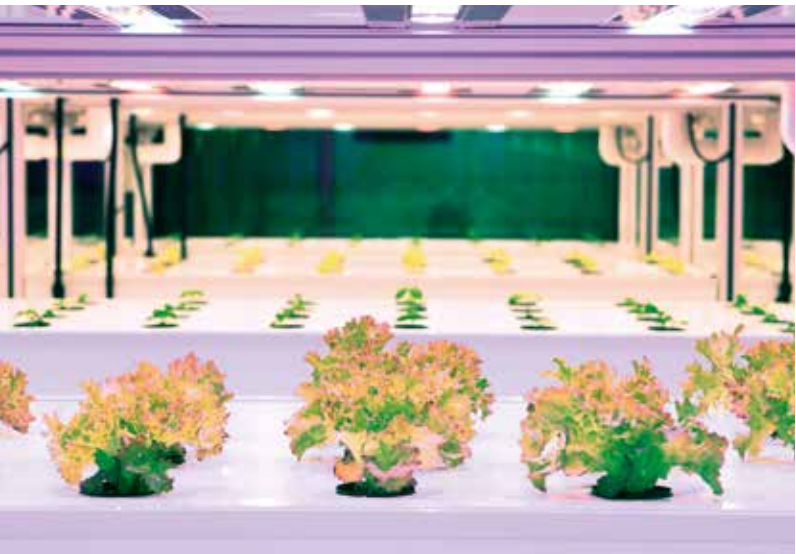
#### Plus Tip

도시농업공원은 부평 십정사거리와 갈산동 부평 국민체육센터 옆에 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내 손으로 농작물을 가꾸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또 수확한 작물을 푸드마켓과 복지관 등 이웃과 나누며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부평구 공원녹지과 509-8683

인천시농업기술센터도 ‘도시농부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도심에 녹색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초, 전문가 양성, 생태텃밭교사 양성 등 세 과정으로 일반 시민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농업기술센터 427-5959, agro.incheon.go.kr







포스코 ‘그린허브’  
우리 아파트에서 농사지어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포스코건설의 사원아파트 ‘송도 더샵 엑스포 아파트’에는 주민들 스스로 초록빛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는 식물농장이 있다. 주민 한 사람당 30포기 정도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분양 경쟁률이 3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상추가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몰라요. 아까워서 못 먹을 정도라니까.” 손혜순(67)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상추를 기르는 재미에 푹 빠졌다. 정성껏 키우지만 한 달에 한 번 재배하면 인심 좋게 이웃과 나눠먹기도 한다. 각박한 도시생활을 여유롭게 하는 시골의 훈훈한 정이다. 이곳은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자연학습장이 된다. 할머니와 함께 농장을 찾은 김석주(11, 박문초 4) 어린이는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다고며 봄별보다 환한 미소를 짓는다. 자연은 이렇듯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내어준다.

포스코건설은 이와 함께 송도사옥에 수경재배의 일종인 에어로포닉(Aeroponic) 재배시스템을 갖춘 도시형 식물농장 ‘그린 허브(Green Hub)’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식물농장에 자동화된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등을 활용하고 양액을 재활용하는 등 Zero Emission(제로이미션) 식물농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싹 틔운 식물농장 시스템을 더 많은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건설 R&D 센터 기술연구소 김관우 차장의 이야기로, 미래도시에 부는 녹색바람을 예견해 본다.

Plus Tip

내가 사는 아파트에 식물농장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 것. 가정용 LED 식물재배기를 들여놓으면, 봄여름가을겨울 ‘홈 메이드 채소’를 만날 수 있다. 30만원 대로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씨앗을 뿌리고 생명을 키워내는 기쁨과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다. 또 집 안의 공기를 맑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며 아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의 역할을 한다.

카스트 친환경 농업기술 054-474-6495  
늘푸른 1566-5818  
참빛영농조합법인 041-546-6202

Plus Tip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많은 학생들이 식물재배전시관 ‘동이네 다랑채’를 찾고 있다. 엄마아빠 손잡고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도 한다. 사전에 동구 홈페이지(icdonggu.go.kr)를 통해 단체관람 및 체험을 신청하면 된다. 관련 영상을 관람하고 식물재배관을 둘러볼 수 있다. 또 직접 식물의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며 손끝부터 마음까지 초록빛으로 물들일 수 있다.

동구 770-6933, 4



송림아프렛길 ‘동이네 다랑채’  
지하보도에 일렁이는 초록물결

동구 송림지하보도 ‘송림아프렛길’에도 초록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10여 년간 방치돼 있던 송림지하보도는 지난해 5월 갤러리와 북카페, 식물전시관 등을 갖춘 시민의 쉼터로 산뜻하게 단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지하보도에 조성한 식물농장 ‘동이네 다랑채’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농장의 면적은 126㎡에 이르며 그 안에서 상추, 케일, 청경채 등 7종에 이르는 채소들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다. 이 앞에선 바빠 지나던 사람들도 잠시나마 마음에 초록빛 여유를 드리운다.

농장의 식물은 자라는 속도가 두 배나 빨라 3일에 한번 30kg 가량을 수확한다. 모두 농약 한 방울 스치지 않은 순수자연 그 자체. 관내 6개 무료급식소에 사랑을 담아 전하고 있다.

동구 전략사업추진실의 최영민 실무관은 “옛 송림지하보도를 기억하는 시민들께서 새롭게 단장한 아프렛길을 보고 놀라시곤 합니다. 특히 흠과 햇빛 없이도 잘 자라는 식물들을 보며 신기해 하시지요. 사계절 푸르른 이들 식물들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아 보는 즐거움에 먹는 즐거움까지 선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잎을 떼어 머금으니 입안 가득 싱그러움이 퍼져나간다.

동이네 다랑채는 미래도시농업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농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곳을 소개했다. 가까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옛것과 새것 어우러진

## 인천 유일의 대학가

대학가는 언제 어느때나 싱그러움으로 반짝인다. 젊고 활기찬 기운이 물씬 느껴진다. 인천의 유일한(?)대학가인 인하대 후문 주변은 젊은 분위기, 밝고 맑은, 젊은 얼굴들이 거리를 누빈다. 청춘은 피어나는 꽃처럼 주변을 화사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 인하대 후문 대학가는 젊은 희망들과 함께 60여 년을 웃고, 울고, 즐기며 성장 해왔다. 대학이 있었기에 대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고, 이들을 상대로 상권은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임운석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정문보다 후문이 발달한 특이한 대학가

인하대는 다른 대학가와 달리 후문 문화가 발달했다. 서울의 홍대, 신촌 등이 정문을 중심으로 상권이 들어서고 대학문화가 발전한 반면 인하대는 후문으로 교통편과 대학상권이 발달한 특이한 케이스다. 인하대 정문이 공장지대인 원인도 크다.

3월 인하대 대학가는 젊음의 특권인 자유와 낭만이 바이러스처럼 퍼져있다. 오리엔테이션, 학생회 모임, 동아리 활동 등으로 교내는 활기차다. 각종모임, 행사를 공지하는 작은 알림판이 곳곳에 나부낀다. 젊음은 항상 생동감 넘친다. 1954년 인하대가 건립될 당시만 해도 이곳은 논과 밭이었다. 학교가 건립되면서 주변에 상가건물이 하나 둘 들어섰고, 80년대 초반만 해도 후문 큰길 주변으로만 상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인하대 후문 문화의거리는 이곳 대학가의 중심 상권이다. ‘인하 문화의거리’ 간판이 서 있는 사거리를 학생들은 ‘고민사거리’ 또는 ‘약국사거리’라고 불렀다. 이곳에서 술을 먹을지, 밥을 먹으러 갈지 또는 다른 곳으로 갈지를 고민한 뒤 움직였다.

인하대는 지방학생이 많은 편이다. 후문 상가 뒤쪽으로는 지방학생들을 상대하는 하숙과 기숙을 치는 집들이 즐비했다. 하숙이든 기숙이든 방을 놓는다는 전단지만 나가면 학생들이 득달같이 와서 계약을 했다. 방이 모자라던 시절의 이야기다.

10여 년 전부터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원룸 붐이 불면서 이제 하숙과 기숙방을 찾는 학생들은 없다. 아무리 기숙방이 싸도 독립된 공간을 원하는 추세 때문이다. 인하대 후문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기숙방을 운영하는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방을 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다. “방 얻을려구 그래? 좋은 방 있는데 한번 가볼라우...”. 상가나 길가를 서성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보는 풍경이다.

인하대 후문에서 35년간 하숙과 기숙을 쳐왔던 신삼재 할아버지(83)의 집은 할머니(78)가 하숙을 하다 10여 년 전부터 기숙방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없다. 기숙방의 한달 방세는 11







만원. 잠만자는 곳이지만 책상, 세탁기, 냉장고 사용이 가능하다. 원룸에 비해 정말 착한 가격이다. “옛날 하숙할 때 정말 재미났어. 학생들도 다 한가족 같았지 뭐. 마루에 큰 상차려 놓으면 학생들이 나와서 밥주고, 국 떠서 먹곤했어. 내 생일때에는 케익사다 불켜고 노래도 불러주고, 학생들 졸업때는 가서 축하해주고 했는데… 다 옛날 일이야.”

#### 8,90년대 인하안경 대학상권 이끌어

8,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하대 후문 상권을 키운 것은 인하안경의 몫이 컸다. 당시 싸고 질 좋은 안경을 파는 곳으로 명성을 날리면서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안경을 하러 찾아왔다. 매장에 손님이 꽉차면 인근 찻집에서 티켓을 끊고 기다리게 했다. 전국에서 매출로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였다. 인하안경 한상복(46) 마이스터는 “90년대 인하안경에서 안경하고 회먹고 가면 서울에서 안경하는 값과 비슷하게 들었다”며 인하안경이 얼마나 썩었는지 말한다.

인하대 후문의 명소는 당구장이었다. 수십 년간 영진당구장, 거북당구장 등은 인하대생들의 공장 시간을 메워주는 오락실이었다. 인하대생들은 우스갯소리로 ‘당구학점 300은 돼야 졸업한다’고 할 정도로 당구실력이 만만치 않았고, 당구장도 많았다. 지금은 그 많던 당구장도 하나들 없어지고 장사도 옛날만큼 안 된다며 하소연 한다. 1,2층이 당구장이었던 건물들은 영진당구장을 빼곤 1층은 슈퍼와 은행에 내주고 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45년간 당구장을 운영해 온 영진당구장 대표는 “요즘은 가게들이 학생들이 개강하고 한 달만 정신이 없어요. 학생들 학생회, 동아리 모임하는 동안만이에요. 그 기간 지나면 학생들이 없어요. 불황이라서 그래요. 게임비도 가위바위로 해서 각자 몇백원씩 나눠내는 형편이에요.”

#### 싼 가격에 푸짐한 음식 차별화 된 메리트

인하대 후문 대학가 먹자골목의 강점은 가격이다. 푸짐한 음식에다 싼 가격이 메리트다. 부모에게 용돈을 타 쓰는 학생들을 위한 상인들의 배려다. 밥값 4천원선, 술값 1~2만원선이면 2~3명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인하대 동문들은 졸업 후나 결혼한 뒤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아 외식을 즐길 정도로 음식 값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모으는 큰 요인이다. 지금도 식당에 가면 밥은 무한리필이다. 이곳에서 2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한 한 상인은 “먹자골목이 너무 싸서 인하대생들은 이곳을 못 떠난다”고 말할 정도다.

인하대 문화의 거리 전성기는 2000년대 중반까지다. 경제호황과 맞물려 학생은 물론 시민들도 대학의 낭만을 만끽하기 위해 이곳을 즐겨 찾았다. 용현동 성당 언덕배기에서 중심상가 거리를 내려다보면 사람들로 꽉 메워져 머리만 보였을 정도였다.

인하대 문화의 거리도 시대와 같이 흘러간다. 대자본을 앞세운 프랜차이즈점들이 1,2년 전부터 인하문화의 거리에 하나들 들어서기 시작했다. 유명 커피전문점, 고기집, 치킨집, 화장품가게 등이 목 좋은 상권을 차지했다. 프랜차이즈의 등장으로 가격은 다른곳과 같아졌고, 대학교유의 문화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구월동 로데오거리의 등장도 인하대 상권이 약해지는 데 한몫했다. 로데오거리가 생기면서 상권의 중심이 옮겨졌고 덩달아 젊은이들도



차츰 인하대 후문을 떠났다. 교통 좋고 볼거리 많은 구월동으로 그들의 공간을 옮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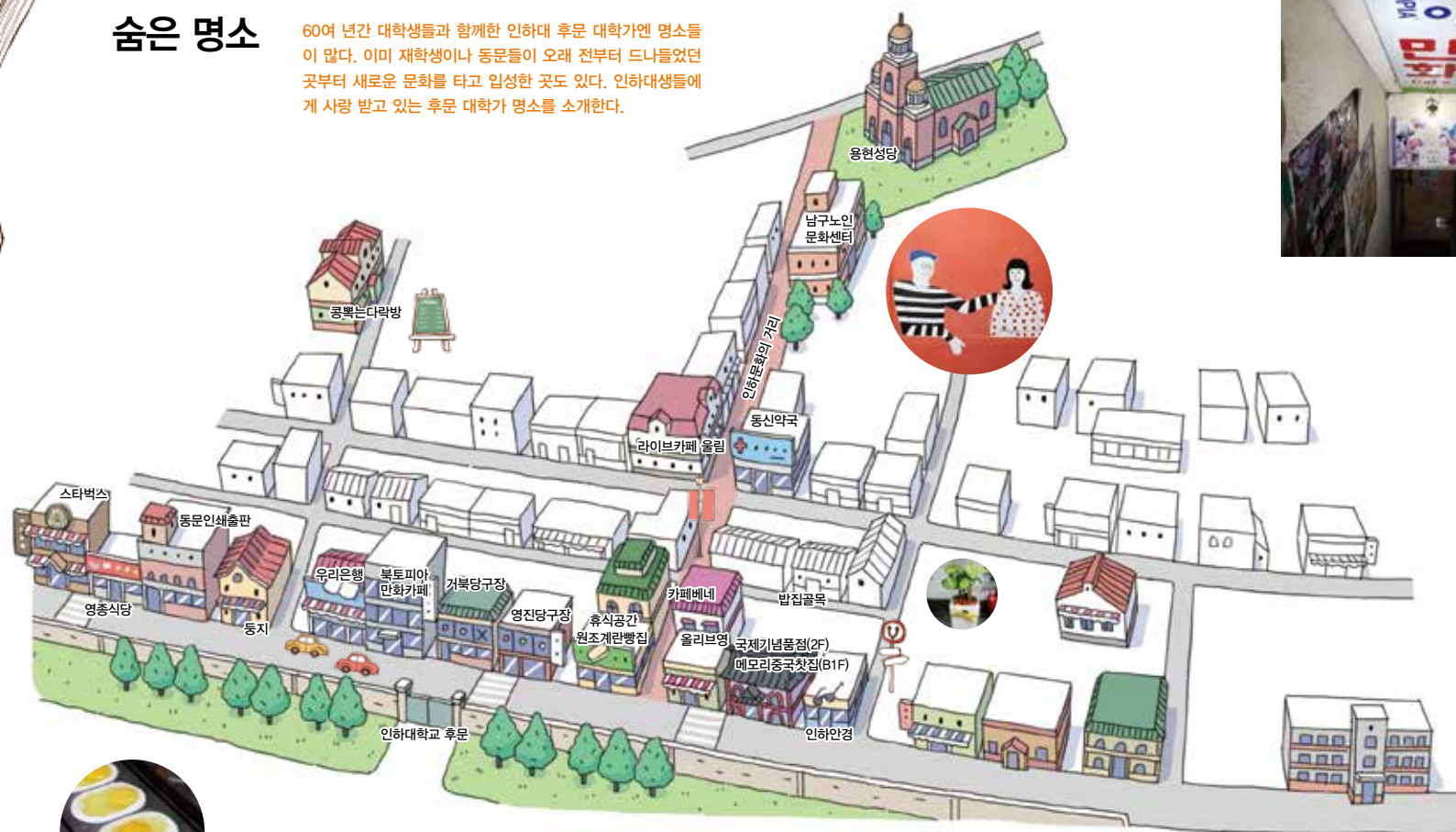
젊은 지성들의 토론과 고뇌가 묻어 있던 대학가. 그곳에서는 더 이상 막걸리를 마시며 민중가요를 부르지 않는다. 대신 영어로 쓰인 체인점 간판과 네온사인들이 밤거리를 휘황찬란하게 장식한다. 그래도 인하대후문 대학가는 항상 엄마의 품처럼 푸근하다. 언제 어느때 다 시와도 받아줄 만큼 넉넉하고 따뜻함이 살아있다. 이런 정이 인하대 상권을 떠받치는 힘이다. 인정스러우면서, 살갑고 각박하지 않다. 때문지 않은 젊은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낭만,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인천의 유일한 대학가인 인하대 후문이 오늘도 이어지는 이유다.





## 찾았다! 인하대 후문 숨은 명소

60여 년간 대학생들과 함께한 인하대 후문 대학가엔 명소가 많다. 이미 재학생이나 동문들이 오래 전부터 드나들었던 곳부터 새로운 문화를 타고 입성한 곳도 있다. 인하대생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후문 대학가 명소를 소개한다.



### 전설의 원조 계란빵집

84년부터 인하대 후문에 자리잡은 전설의 계란빵. 노란반죽에 싱싱한 계란 한 알을 톡 깨뜨려 8분간 굽는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30년 가까이 돈없고 배고픈 학생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었다. 한입 배어물면 빵속에 영양가득 고소한 계란 하나를 온전히 먹는다. 이 집은 전국에 계란빵 열풍을 일으킨 원조다. 84년 100원부터 시작한 가격은 인상이 불가피 할때마다 50원씩 올랐다. 계란빵의 지금 가격은 500원.

### 영진당구장

영진당구장은 45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부터 재학생까지 학생들의 쉼터이자 오락실이었다. 작고한 창업주 이순철 옹은 학생들에게 벌은 돈은 다시 학생들에게 쓰여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아 상당한 금액을 인하대에 매년 기부했다. 본인은 찢어진 신발을 신고, 새옷 안 사면서 모은 돈이었다. 이런 공로로 당시 인하대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중국찻집 '메모리'

메모리는 중국 유학생들이 운영하는 중국 전통찻집이다. 원나라에서 처음 재배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10대 명차 중 하나인 용정(龍井)차, 중국 전통 우롱차 중 하나인 철관음차 등 30여 가지 차를 선보이고 있다. 찻집 메모리를 운영하는 주인공은 중국 유학생 창홍위(인하대 대학원)씨와 시에레이(인하대 대학원)씨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다. 이들의 꿈은 스타벅스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차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 라이브카페 올림

80년대 음악다방을 연상시키는 라이브카페다. 목, 금, 토요일은 저녁 9시부터 라이브 공연을 한다. 카페주인 한석(37)사장은 어렸을 때부터 기타리스트와 밴드활동을 해왔던 뮤지션 출신이다. 본인의 꿈도 뮤직 펍 가게를 갖는 것이었다. 이곳엔 3천장의 CD가 있다. 메탈, 블루스, 인디밴드, 팝송 등 다양하다. 음악을 신청하면 음악과 함께 뮤직비디오나 공연영상을 함께 볼 수 있다. 인하대 후문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

### 공복는다락방

인하대 후문에서 로스팅 하는 커피전문점이다. '공복는'이 아닌 '공복는' 다락방은 2년전 문을 열었다. 대형 커피전문점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집이다 보니 가게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하면서 독특하다. 예쁜 테이블에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사랑방이나 다락방에 앉아서 커피를 즐길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있어 인기가 많다.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판매한다.



### 국제기념품점

80년에 문을 연 국제기념품점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기념품, 현수막, 상패 등을 납품하면서 성장했다. 국제기념품점을 운영하는 박경복(65)사장은 형님과 사업을 시작했다. 인하대, 인하공업전문대, 정석고등학교 등은 물론이고 인천의 큰 회사, 신문사 등이 주 거래처였다. 예전 한참 잘 나갈때는 국제기념품점이 기준이 돼서 인하대 후문의 지도가 그려지곤 했다. 지금도 취급하는 상품만 1만 중에 이른다.

### 학사주점 동지

시대에 고뇌하고 토론하던 청춘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학사주점이다. 돈없고 배고픈 학생들에게 막걸리, 소주와 양 많은 안주를 싸게 제공했다. 단골만 주로 다니는 술집이다. 운동권 학생들이 이용하던 영종, 하인네와 함께 전성기를 이뤘다. 동지가 자랑하는 안주는 뽕집, 파전, 삼치구이로 가격은 6천~8천 원선이다. 소주에다 안주하나 시켜도 1만원 정도면 술을 먹을 수 있다. 가게는 최재유 사장(35)과 어머니가 함께 운영한다.

### 북토피아 만화카페

7,80년대 만화방을 추억하게 하는 가게다. 인하대후문 건너편에 자리 잡은 지 10여 년이 넘었다. 80년대 전설의 명작 '공포의 외인구단' 시리즈부터 요즘 잘나가는 야왕, 블러치, 열혈강호 등 4만5천권의 만화시리즈를 소장하고 있다. 만화카페는 24시간 운영하고 손님이 원하면 라면도 끓여준다. 짜장면도 시켜준다. 만화대여는 시간으로 계산한다. 1시간에 몇권을 보더라도 2천원이고 야간에는 5천, 7천원이다.



## ‘여섯 줄 은하수’의 음율에 빠지다

악기가 흔치 않던 시절, 통기타 하나만 있으면 노래, 반주, 클래식연주까지 다 되던 시절이 있었다. 집집마다 통기타는 필수품이었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부는 안하고 기타끼고 킁킁거리는 자식들 모습에 속개나 태웠다. 그래서 통기타는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한다. 경인방송이 주관한 ‘기타킹’대회는 기타 꽤나 친다는 밴드, 뮤지션, 골방 기타고수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였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결승진출 아홉 팀… 만만치 않는 기타고수 총 출동

지난달 23일 송도 트라이볼에서는 통기타 최고수를 뽑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인방송이 올해 두 번째로 여는 ‘기타킹’ 대회 결선 현장이다. 송도 트라이볼은 독특한 공연장이다. 밖에서는 세 개의 불이 합쳐진 모양으로 세계 최초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다. 음율이 퍼져야 하는 기타공연장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최종 결선 진출자는 아홉 팀. 전국의 기타고수 200명이 자신의 통기타 연주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내는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예선, 본선을 거쳐 최종 아홉 팀을 선정했다. 결선에 진출한 아홉 팀 선수들의 기타실력은 만만치 않았다. 가히 프로 기타리스트를 능가하는 솜씨였다. 결승진출자들의 나이, 지역도 다양했다. 초등학생, 중학교 여학생, 고등학교 남학생은 물론 밴드보컬팀,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참여자까지 통기타가 각 세대에 게 아낌없는 호응을 받고 있는 악기임을 입증했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꿈인 최연소 참여자 임형빈군(12). 울산에서 올라온 임군이 선보인 곡은 자작곡 ‘돌고래를 찾아서’다. 어린 학생이 기타로 자작곡을 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주법도 기타를 놓

혀놓고 기타줄을 누르면서 손가락으로 치는 테핑하모닉스라는 독특한 연주법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김경빈(19) 군은 결승진출 아홉 팀 가운데 유일한 인천 출신으로 대학 검정고시를 준비중이다. 음악이 좋아 기타를 시작했다는 김군은 작년에 도 기타킹에 도전했다가 아쉽게도 탈락의 아픔을 맛봤다. 기타킹의 꿈을 이루고 싶어 다시 도전했다.

부산소녀 이에현(15) 양은 클래식기타 연주자가 꿈이다. 기타리스트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자매 모두 기타를 치는 기타가족이다. 기타는 가슴속으로 연주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양은 토미 엠마누엘의 ‘헌트’를 선보였다. 아직 사춘기 소녀이지만 파워풀한 기타소리, 유연한 손놀림, 음악에 몰입하는 집중력이 돋보였다.



대회수상자에 고급기타, 음원제작·유통 지원

이번대회 최고령자인 현준민씨(40)는 자작곡 ‘포도밭의 계절’을 연주했다. 자신이 남양주에 있는 포도밭에서 살고 있어 포도밭의 감성과 느낌을 라틴풍으로 표현한 감성적 곡으로 갈채를 받았다.

대회의 마지막 주자는 연상녀, 연하남으로 이뤄진 남녀 혼성 밴드 ‘룸217’이다. 각각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이 팀은 환상적인 기타와 보컬의 만남이라는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들은바 있다.

보컬 심지희(28)씨는 보라색의 타이트한 원피스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Enter Sandman)’을 재즈풍의 파워풀하고 폭발력있는 가창력으로 불러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들은 곧 싱글앨범을 제작하며 싱어송라이터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심사엔 기타리스트 박주원, 대중음악평론가 성우진, 기타리스트이자 가수인 김도균씨가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이 높은 기타실력에 보여줬다고 입을 모았다.

대회 수상자들에게는 고급기타, 음원제작 및 유통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대회 최고상인 기타킹에는 울산에서 올라온 최연소 참가자 임형빈(12)군이 차지했다. 임군은 기타킹외에도 기타퍼포먼스 부문, 연주부문 우수상 등 대회 3관왕을 차지 할 정도로 빼어난 실력을 보였다. 임군은 37.5g 상당의 금이 들어있는 황금 기타피크를 부상으로 받았다.



무대 뒷 이야기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사연을 갖고 참여한 분들이 많다. 인천 옹현동 토박이로 네오팍 블루스밴드 ‘하수상’의 리더를 맡고 있는 김선미(30)씨도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허스키 보이스로 호소력있는 음색이 그녀의 매력. 그녀는 본선에서 자작곡 ‘너의 옆에서’를 불러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스티비 원더를 꿈꾸는 남자친구와의 사랑, 아픔을 담았다.

이번 대회엔 처음으로 외국인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일본인 타나카 슈타(25)는 한국생활의 외로움을 표현한 자작곡으로 본선에 올랐다. 그는 5년 전 한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 “힘들 때는 작곡하면서 슬픈 노래가 나와서 그거 치면서 위로하고...”그가 기타를 치게 된 사연이다. 부모와 함께 본선 무대를 찾은 15살의 엄지윤 양은 기타가 공부보다 더 재미있어 기타킹에 참가한 케이스다.

노래와 연주부문에 참가한 박상욱(26)씨는 기타를 한 지 8년이 넘은 베테랑이다. 그는 본선무대가 열린 스튜디오에서 자신과 동생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바치는 편지로 스튜디오를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제2회 ‘기타킹’ 임형빈(12)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되는게 꿈”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보기엔 또박 또박하면서도 답변이 당차다. 임군은 이번대회에서 기타퍼포먼스, 연주부문 우수상, 기타킹으로 3관을 차지했다. 임군은 3학년때부터 기타를 잡았다. 기타를 잘쳤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배운 지 얼마되지 않아 뛰어난 연주실력을 보여, TV예능,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 자신의 실력을 뽐낸 바 있다.

임군이 기타킹 결선에서 선보인 곡은 자작곡 ‘돌고래를 찾아서’다.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돌고래가 나온 것을 보고 돌고래가 바다로 나가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 영감과 느낌을 곡에 담았다. 임군은 예선에서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천재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어거스트 러쉬(August Rush)에서 선보였던 ‘연필과 볼펜’으로 OST 바리 임프로브(Bari Improv)를 완벽하게 연주했다.

임군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음의 높낮이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기타소리를 낸다는 평을 들었다. 최연소 참가자였지만 누나, 형들을 물리치고 최고영예를 차지했다.

## 인천 알리는, 아름다운 얼굴들



GCF 사무국 유치,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 대회 개최....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높이 더 멀리, 빛나는 내일을 향해 도약하는 도시. 인천의 비전과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고마운 이들이 있다. 바로 우리 시를 빛내는 아름다운 ★, '인천시 홍보대사'들이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시 대변인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 incheon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인천 홍보, 우리에게 맡겨요~

인천의 비전과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관심을 이끄는 고마운 이들이 있다. 바로 '인천시 홍보대사'들이다. 우리시의 주요사업을 비롯해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외교사절단, 반짝반짝, 인천을 빛내는 아름다운 별들과 만난다.

인천시 홍보대사들은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특히 배우 이시영은 여배우이면서도 복싱선수로 활약하는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1월 2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그는 최근 인천시청 복싱팀에 입단해 아시아경기대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시영과 함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스타들은 수영선수 박태환, 탤런트 최불암, 마라토너 이봉주, 소프라노 조수미, 당구선수 차유람, 가수 박강성 등이다. 인천에 대한 애정과 스포츠를 향한 열정이 이룬 성숙한 홍보대사의 모습을 기대한다.





박 태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 위촉



#### 세계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아

인천시 홍보대사 가운데 인천의 매력을 바다 건너 멀리까지 알리는 한류스타들도 많다. 지난달 20일에는 그룹 JYJ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JYJ는 이 자리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홍보하게 되어 영광이다. 국내외 팬들에게 아시아경기대회와 개최도시 인천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JYJ는 인천을 알리는 춤과 음악, 뮤직비디오 제작 등에 참여하고, 오는 10월과 11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 로드쇼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1년에는 그룹 SS501의 멤버 박정민이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그는 송도국제도시를 배경으로 찍은 대만드라마 ‘변당화원’의 주연을 맡아 인천의 위상을 떨친 바 있다.



배우 유승호는 지난 1월 29일 인천시 뷰티도시 홍보대사로 선정되며 인천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인천을 뷰티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뷰티도시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뷰티상품 공동 판매장 ‘휴띠끄(Huetique)’를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장품 브랜드 ‘유엔비(U&B)’를 개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전속모델로 유승호를 선정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그는 홍보대사로서의 각오도 남다르다. ‘아름다운 청년’ 유승호가 인천의 뷰티 브랜드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길 바란다.

#### ★ 인천을 반짝반짝 빛낸다

우리시 홍보대사의 시작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적인 4인조 혼성그룹 보니엠(Boney M)은 그해 7월 인천시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레게음악에 디스코댄스 리듬을 접목한 독자적인 장르로 7,80년대 인기를 모은 보니엠은, 전 세계를 돌며 콘서트를 여는 동안 인천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됐다.

홍보대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천의 매력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지난 2011년에는 인천·주간문화축제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방송인 크리스티나와 비앙카, 가수 휘성, 호란, 노브레인, 봄여름가을겨울 등을 인천문화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었다. 또 같은 해 공정무역도시 인천만들기의 일환으로 배우 손태영과 성우 배한성을 공정무역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었다.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인천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는 홍보대사. 인천을 반짝반짝 빛낼, 별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맛있는 밥상의 최후,

## 그 현장을 가다

사람이든 도시이든 ‘배출’을 해야 한다.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병든다. 잘 버려야 건강하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바상이 걸렸다. 올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해양 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음식물에서 나온 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가 없다. 우리가 맛있게 먹고 남긴 음식물쓰레기의 최후가 녹록치 않게 되었다. 쉽게 버린 우리 식탁의 흔적. 그 흔적을 처리하는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운영팀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글 · 사진 김민영 자유기고가



### 음식물 쓰레기 속의 싯덩이들

아직 여명의 기운조차 없는 새벽 5시. 송도국제도시 건너 바다를 끼고 LNG 기지로 가는 길. 어둠과 물안개를 뚫고 트럭들이 달린다. 송도사업소의 하루는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온 차량들의 엔진 소리와 함께 다시 시작된다. 차량 한 대에 7~8t, 하루 30여 대 차량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음식물쓰레기는 모두 200t. 부평구와 남동구, 연수구와 옹진군, 그리고 송

도국제도시에서 밤새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온 차량들은 오전 10시까지 송도사업소에서 속을 비우고 가벼운 몸으로 바다를 건너 되돌아간다. 음식물쓰레기 운영팀은 4인 1조, 4개조로 나뉘어 365일 쉬지 않고 24시간 음식물을 처리한다. 시간은 흘러 다시 현재 시각 오후 2시.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나르는 차량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트럭들로 북적거렸던 사업소 집하장은 이미 거대한 음식물쓰레기 더미를 삼킨 상태다. 1차 이물질을 걸러내는 거대한 스크루를 통과해 사라진 음식물 쓰레기는 악취만 남기고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 최후를 향한 절차를 밟고 있다.

김창진 팀장(음식물쓰레기 운영팀)이 각종 식불이를 내보인다. “음식물쓰레기에 음식물만 담겨오지 않아요. 별의별 게 다 들어옵니다.” 그의 걸음을 따라 간 곳에 크고 작은 이물질들이 분리되어 쌓여있다. 수저, 병뚜껑, 압력밥솥 팔랑이, 고무장갑, 양파망, 싯덩이..., 이런 것들은 스크루와 파쇄기 고장의 주범이다. 간혹 개창자도 들어오는데 질겨서 스크루에 감기고 잘 끊어지지도 않아 작업을 더디게 한다.

김 팀장은 “버릴 때 잘 버리면 그만큼 기계고장이 줄죠. 하루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정해져 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시간만큼 처리량은 줄 수밖에 없죠.” 작업중에 이르니 차가운 바람 앞에서도 고약한 냄새가 점점 강해진다.

### 바다, 이제 침출수 사양

1차 선별과정을 거치는 지하 작업장으로 가는 계단은 미끌미끌하다. 지하 공간을 가득 채운 거대한 기계들. 이곳 바닥도 끈적끈적한 물기를 머금어 미끄럽다. 모터소리가 지하공간을 가득 울린다. 기계소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리저리 옮기며 몸집을 줄인다. 이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고형물과 폐수(침출수)로 분리된다.



수저, 병뚜껑, 압력밥솥 팔랑이, 고무장갑, 양파망, 싯덩이..., 이런 것들은 스크루와 파쇄기 고장의 주범이다.







웁웁~ 웁. 작은 스크루가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음식물 찌꺼기를 스팀공정으로 운반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바뀌었어요. 퇴비화 방식을 사용하다가 올해 1월부터 건조 사료화 방식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죠.”

김 팀장이 변경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설명한다. 기존의 퇴비화 방식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36일이 걸렸다. 음식물쓰레기는 고형물(음식물 찌꺼기)과 폐수로 나뉜다. 고형물은

툽밥과 혼합해 발효시켜 삭히고 후속조에서 다시 발효를 거쳐 퇴비로 재생산됐다. 이 과정에서 혼합고형물이 큰 것은 소각동으로 이동해서 태웠다. 고형물과 분리된 폐수는 폐수처리과정을 거친 후 하수처리장으로 보냈다.

기존의 퇴비화 방식은 발효시키고 삭히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사시사철 50℃를 유지했다.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온도에서 땀과 악취 속에 몸을 맡기고 팀원들은 작업을 했다. 악취는 시설을 쉽게 삭게 할 만큼 독해서 시설의 수명도 단축시켰다. 쇠를 녹일 만큼 독한 가스를 맡으며 작업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건조 사료화 방식으로 변경된 후 환경이 달라졌다. 당일 반입에 당일 생산으로 전환됐다. 숨을 턱 막히게 했던 고약한 악취는 약간 상한 멸치를 찢 듯한 냄새로 순해졌다. 비록 공정방식 전환으로 악취가 70% 줄었다지만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고약한 냄새다.

“음식물 쓰레기는 침출수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서 버리면 침출수를 줄일 수 있어요. 해양투기가 금지된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수도권매립지와 하수처리시설인 공단 내 가좌사업소,



승기사업소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어서 다행히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음식은 털 버리는 게 중요하고 버리더라도 잘 버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라는 김 팀장의 설명이다.

### 버린 만큼 돈 더 낸다

인천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송도사업소 200t, 청라사업소 100t 등 총 300t에 이른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태워지거나 퇴비 원재료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사료의 원재료로 제공하는 대신 2천500만원 상당의 현물(비료 등)을 받는다.

현재 인천시처럼 음식물 처리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다. 이외 지역은 모두 민간업체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해양 투기가 금지 되면서 침출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공공주택에서 일괄 처리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버릴 때 바로 바로 무게를 달



아 카드에 적립되기도 한다. 내가 버린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 음식물 쓰레기의 부과와 무게도 최소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버리기 전에 줄여야 하고 그보다 앞서 만들기 전에 줄여한다. 그것만이 환경을 지키는 길이다.

### 음식물류 폐기물 이렇게 버립시다

- 이물질(종이, 플라스틱 등)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합니다.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군 다음에 버립시다.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고 포장되어 있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품목

구 분	재활용가능 품목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사용 배출)	재활용하지 못하는 품목 (일반쓰레기봉투 사용 배출)
채 소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추, 상추 등 조리 전·후의 채소류</li> <li>파, 미나리 등 뿌리 종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추씨, 양파·마늘껍질 등</li> <li>흙이나 이물질이 있는 쪽파, 대파의 뿌리</li> </ul>
과 일 류 (건과류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렌지, 귤, 파인애플, 사과, 수박 등 과일껍질</li> <li>밤, 땅콩 등 파쇄가 용이한 건과류 껍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두껍질, 복숭아·살구씨 등 파쇄가 용이하지 아니한 딱딱한 씨앗종류</li> </ul>
어 패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게, 가재, 새우 등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개, 소라, 전복 등 패각류 껍데기</li> </ul>
육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거나 튀겨 파쇄가 용이한 닭 뼈다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쇄가 용이하지 아니한 동물 뼈 등</li> </ul>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골든키로, 손님의 마음도 열겠습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영화 ‘귀여운 여인’에는 여주인공 비비안(줄리아 로버츠 분)을 묵묵히 돕는 호텔 지배인이 등장한다. 그는 비비안이 고급 옷가게에서 모욕을 받고 호텔로 돌아오자 잘 아는 부티크를 소개해 주고, 고급 레스토랑이 생소한 그녀에게 친절히 테이블 매너를 알려 주기도 한다. 그는 다름 아닌 호텔의 컨시어지(Concierge). 호텔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비서의 역할을 한다.

호텔 ‘쉐라톤 인천’에서 컨시어지를 담당하는 이상훈 지배인은 최근 세계컨시어지협회로부터 ‘골든키’를 수여받았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골든키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 받는 컨시어지를 상징한다. 키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과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세계컨시어지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골든키를 수여받은 사람은 단 16명에 불과하며 인천에서는 이상훈 지배인이 처음이다.

“날아오를 듯 기뻐요. 세계 호텔의 현업 종사자들에게 인정받으며 컨시어지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니까요. 금빛 배지를 단 후 고객의 눈빛에서 오는 신뢰감도 다르게 전해집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올해 GCF 사무국을 열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둔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배후로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세계로부터 최고의 호텔리어로 인정받은 이상훈 지배인은 세계인을 맞을 준비가 된 국제도시 인천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다가서며 국제도시 인천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컨시어지가 마음에 품어야 할 좌우명은 “Never Say No”. 그는 고객이 원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언젠가는 한 외국인 손님이 우리나라 양궁선수들이 사용하는 활을 갖고 싶다고 부탁했고, 수소문 끝에 결국 활을 손에 쥐어드렸다. 또 한번은 외국인 여성 고객의 요청에 주변의 여행코스를 자세히 알려주었고, 고객으로부터 ‘Best’라는 칭송과 함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받기도 했다.

“컨시어지의 영역은 그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준비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발휘해야 할 때가 생기지요. 그래서 전 손님의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을 읽고 맞춰드리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를 상징하는 골든키가 그의 옷깃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상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그는 손님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 세계의 문을 열 골든키를 쥔, 최고의 컨시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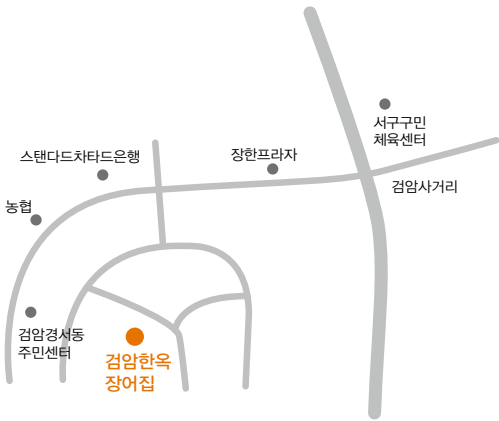


마당깊은  
한옥에서

장어를 맛보다

국화 꽃무늬를 놓은 창호지 문이 그런 대로 그윽하고, 달빛 비치는 어느 가을밤  
혹여 이불잇에 떨어지는 창살 그림자가 있다면 참으로 제법일 듯싶다. 마당 가  
운데에 돌을 밝아 치장한 우물과 붉은 녹을 쓰고도 아직 소임을 충분히 하고 있  
는 펌프 따위가 머릿속 생각을 금세 몇 십 년 뒤로 돌아가게 한다.

글 김윤식 시인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옛그제 서울 종로 인사동에서 큰 불이 나 건물 6동, 20여 점포가 소실됐다는 신문보도를 보며 언뜻 ‘검암한옥’이 뇌리에 스쳤다. 그 신문은 화재와 관련하여 칼럼도 실었는데 “다미·우정·태화·향정도 손바닥만한 ‘ㅁ’자 마당을 둔 한옥이다. 째쨌한 골목, 웅숭깊게 들어앉은 방에서 밥을 먹다 비라도 오면 마음부터 축축이 젖는다.”라고 적고 있었다. 그 구절이 더욱 이 한옥 생각을 하게 했다. ‘검암한옥’은 한옥 본래의 격조를 완벽히 갖추었던 집은 아닌 데다가 장사를 위해 여기저기 손질을 해서 개량 한옥이라고 할 것이지만, 인사동 집들과 똑같이 손바닥만한 ‘ㅁ’자 마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방안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 겨울, 웅색하기는 해도 그 마당에 내리는 눈발을 내다보는 마음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던 것이다.

빌라촌의 유일한 한옥, 70년 묵은 멋

물론 ‘검암한옥’은 값이 헐하지 않은 장어구이 집이어서, 시인, 화가, 회사원, 기자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끼 밥을 파는 인사동류의 그런 정취는 없다. 또 애초 ‘ㄱ’자 형 집에 ‘ㄴ’만큼

뒹대어 지은 한옥인 터라 웅숭깊은 맛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청마루 위 천정에 드러난 대들보와 반들반들 윤이 나는 서까래, 그리고 사이사이에 바른 회고 단정한 회칠은 70여 년 묵은, 서른 평짜리 한옥의 맛과 멋을 내기는 내는 것이다.  
국화 꽃무늬를 놓은 창호지 문이 그런 대로 그윽하고, 달빛 비치는 어느 가을밤 혹여 이불잇에 떨어지는 창살 그림자가 있다면 참으로 제법일 듯싶다. 마당 가운데에 돌을 밝아 치장한 우물과 붉은 녹을 쓰고도 아직 소임을 충분히 하고 있는 펌프 따위가 머릿속 생각을 금세 몇 십 년 뒤로 돌아가게 한다.  
서구 검암동 196번지 ‘검암한옥’. 온통 빌라촌이 되어 버린 허암산 발치 일대에 어떻게 이 집만 혼자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주인 송병일(宋炳一·70세)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십수 년 전 구획정리 당시, 다른 집들은 모두 헐리는데 이 집만은 상태가 양호해 준치 건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런 운명이었던지 지금은 ‘검암한옥’이라는 옥호로 검암지역 대표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다. 하기가 여기 살던 옛 토박이들도 이 ‘검암한옥’을 바로미터삼아 ‘이쯤이 누구네 집, 이쯤이 누구네 대문, 저만큼이 정씨네 안채’ 등등을 떠올린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이번 호도 음식 이야기보다 또 이렇게 곁가지로 나가 많은 지면을 없앴다. 그러나 굳이 ‘검암한옥’을 부각하는 까닭은 사라져버린 ‘우리 삶의 모습’이 이집에 조금이나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도시 어느 구석에서 옛날 기와집 한 채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한편 요즘 어느 집이나 장어 요리법이 크게 다를 리 없고, 또 그 맛이 어디에 가면 뭐 얼마나 다르랴 싶어서다.

#### 인천 장어집들 관서식 가바야끼 요리법 따라

솔직히 말해 그것은 장어요리를 많이 경험하지 못해 썩 정통하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천생이 인천이어서 어려서부터 조개, 꽃게 조기, 민어, 준치 따위나 입에 대 보았지, 장어는 그야말로 ‘시커먼 뱀처럼 생긴 데다가 몹시 미끈거려 다루기가 지겹고, 물에서 나와도 오랫동안 죽지 않아 징그럽기’ 짝이 없는 존재여서 부엌에서고 식당에서고 이놈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한국인들 대부분이 그랬을 것이다. 그러다가 양식에 성공하여 양만장(養鰻場)이 들어서고 전국에 장어집들이 생겨나면서 너도 나도 흔히 먹는 음식이 된 것이다. 그런 바람을 타고 인천에 장어 조리 전문점이 생긴 것은 일추 1980년대에 이르러서가 아닐까 싶다. 조리법은 일본식이었다.

“모든 사물에 관동(도쿄 지방)과 관서(오사카 지방)의 지방 차가 있듯이 가바야끼(蒲焼·장어구이)도 뚜렷하게 다르다. 관동에서는 몸체를 등 쪽으로 가르고 관서에서는 배 쪽을 찢는다. 관동은 무사 사회라 우리나라의 사약처럼 절복(切腹)이라는 처벌제도가 있어 배를 찢다는 것을 기피했고, 관서는 상인 사회라 편한 대로 배를 갈랐

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굽는 식도 다르다. 관동에서는 그대로 구워낸 시라야끼(白焼)를 가볍게 찢서 살을 무르게 한 후 다시 다레(양념간장)를 발라가면서 홍야끼(本焼)로 마무리를 지으므로, 모양은 단단하게 보이나 젓가락을 대면 부스러지도록 살이 연하다.

관서에서는 시라야끼와 찢는 일이 없이 처음부터 다레를 발라 구워내므로 탄력이 살아 있다. 서로 자기 방식이 좋다고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으나 피차간 장단점은 있다. 어떻게 된 셈인지 우리나라의 장어구이는 모두가 관서식 가바야끼 일색이다.” 향토사가요 미식가이셨던 고 신태범(愼兌範) 박사께서 쓰신 ‘뱀장어의 진미와 효능’이란 글의 일부분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두 지방 장어 조리법에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흥미롭다. 장어 귀신들의 독특한 조리법과 함께 그 맛은 어떨까 싶어 저절로 입에 침이 고인다.

신 박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천에 생긴 장어 구이집들 역시 관서식 가바야끼를 따랐다고 할



구이가 맛이 좋다는 것은 재료의 수분이 굽는 동안에 증발하여 향미(香味)가 농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바야끼는 부채질을 해가면서 약한 불에 오랜 시간을 두고 구워야 제 맛이 나는 것이다.



수 있다. 아니 실제 모든 업소들이 다 이 방식이었다. 관동식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까닭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손님들의 경원(敬遠)으로 이어져 업소의 앞날에 큰 차질을 가져 올지 모른다.

#### 장어뼈 삶아 만든 독특한 소스가 맛 비결

신 박사께서는 당시 인천 시내에 새로 개업한 장어구이집에 대해 “앞날을 위해 심한 표현을 해도 좋다면, 기름에 지진 밀전병을 들큰한 간장으로 구워낸 것 같다고나 할까?” 이렇게 혹평을 쓰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웬만한 집들도 비교적 우리 입맛에 맞게 장어를 구워낸다. 여기 ‘검암한옥’의 조리법도 관서식을 따르고 있는 셈인데, 늦게 터득한 입맛임에도 상당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구이가 맛이 좋다는 것은 재료의 수분이 굽는 동안에 증발하여 향미(香味)가 농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바야끼는 부채질을 해가면서 약한 불에 오랜 시간을 두고 구워야 제 맛이 나는 것이다.” 주인에게 신 박사의 비결을 들려주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무튼 이 집은 지하에서 퍼 올린 맑고 시원한 청정수에 장어를 하루 정도 두어 뱃속의 흠탕물을 토하게 하는 정성이 있고, 공장에서 배달하는 소스가 아니라 직접 장어의 뼈를 삶아 우려낸 뒤 거기에 몇 가지 재료를 첨가해 독특한 비법으로 자가 생산하는 소스가 있다. 더불어 생강 외에는 순무, 무, 배추, 감자, 마늘, 고추 등속의 채소를 모두 인근 4백여 평 자기 밭에서 손수 재배해낸다. 밀반찬 한 가지, 한 가지가 신선한 맛을 잃지 않는 비결이다.

불과 15년 남짓한 경력이지만, 이 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였다고 한다. 동네 사람 찾아다니며 만나고, 회의하는 일을 오래 하다가 이제는 오는 손님을 맞는 업으로 바꾼 것이다. 워낙 알려지지 않은 집이어서 동네 사람, 친지나 드나들었는데 오늘날은 한 번 왔던 사람들의 구전(口傳)으로 제법 손님이 든다고 한다. 큰아들이 대를 이을 것이라는 주인의 말이 고맙고, 크게 안심이 된다. 사면 빌라가 들어선 곳에 알박히듯 서 있는 ‘검암한옥’이 그나마 보존될 수 있어서 마음 놓인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지금 자기 아버지쯤에 이르면 이 집도 어엿한 노포(老鋪)가 되어 있을 테니 말이다.

문의 : 566-4545

### 뮤지컬 <셜록 홈즈-앤더슨가의 비밀>

치밀한 구성과 날카로운 추리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셜록홈즈>가 뮤지컬로 인천 관객들을 만난다. 지난해 초연한 뮤지컬 <셜록홈즈>는 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의 동명소설 중 한밤중 런던의 저택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그린 ‘앤더슨가의 비밀’을 다루고 있다. 탄탄한 구성과 극적 긴장감으로 호평 받은 이 작품은 제17회 한국뮤지컬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 등 3관왕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제6회 더 뮤지컬 어워즈 5관왕, 제1회 에그린 어워드 3관왕을 휩쓸었다.



**일시** : 3월 29~31일(29일 오후 8시, 30일 오후 3시, 7시, 31일 오후 2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6만원, S석 5만원  
**문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7, 1566-6551

### 모닝콘서트 I <추가열의 포크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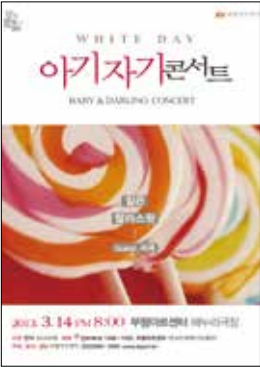
2013년을 맞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새롭게 <모닝콘서트>를 선보인다. 바쁜 오전 시간을 정리하고 한숨 돌리는 오전 11시, 음악으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모닝콘서트>는 맑은 아침 공기처럼 가볍고 상쾌한 무대로 관객과 소통하는 관객 친화적 공연이다. 첫 무대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포크음악을 들려주는 싱어송라이터 추가열이 연다. SM엔터테인먼트내의 유일한 포크가수인 추가열은 섬세한 감성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음색으로 7080세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일시** : 3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1만원  
**문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7

### 화이트데이 <아기자기 콘서트>

‘화이트데이’, 달콤한 사랑이야기를 전하는 콘서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자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설레임을 전해야 하는 시간. 이들의 사랑을 아름다운 선율과 노랫말로 대신 전하는 모던락 그룹의 세레나데가 큐피트의 화살을 대신한다. 인디씬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남성밴드 ‘질은’, 달콤한 여성밴드 ‘랄라스윗’, 신예밴드 ‘피콕’이 만나 남녀의 심리와 사랑에 대해 따뜻한 감성으로 노랫말을 전한다.

**일시** : 3월 14일(목) 오후 8시  
**장소**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 3만원  
**문의** : 500-2000



###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6회 정기연주회

인천시립교향악단이 <Maestro & Rising Star in Incheon> 시리즈를 준비했다. 인천 클래식 팬들에게 한국을 넘어 세계 클래식계를 이끌어 갈 떠오르는 스타들을 소개하는 이 기획은 올해 총 5번 진행된 다. 그 첫 무대인 3월에는 스펀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활동 중인 진동카이의 지휘로 바그너의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중 서곡과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을 만난다. 또 지난해 하노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이 협연한다.

**일시** : 3월 15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 인천시립교향악단 420-2781

### Exhibition

#### 이달의展

- |                      |  |
|----------------------|--|
| <b>3월 1일~3월 07일</b>  | 제14회 대한민국 인터넷 서예문화 전시회(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꿈꾸는 다락방 삼인삼색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 <b>3월 7일~3월 17일</b>  | 구원선의 꿈을 담은 행복 그리기(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 <b>3월 7일~5월 26일</b>  | 인천아트플랫폼 2013 입주작가 프리뷰전(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외)                               |
| <b>3월 9일~3월 10일</b>  | 제10회 인천난명품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제14회 미추홀 한글서예협회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 <b>3월 21일~3월 31일</b> |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인천지부 5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 <b>3월 22일~3월 28일</b> | 민족의 숨결, 찬란한 국보(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                      | 제2회 이선영 수채화 개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26회 인천 구상작가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

### CALENDAR 03 PERFORMANCE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WEN	THU	FRI	2 SAT
3	4	5	6	7	8	2013 게그빅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VIP석 7만/천원,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해피월드 1588-6180 신진예술가 발굴 프로그램 끝없는 프로젝트 I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 오후 7시30분 / 무료 ☎032-453-5710
10	11	12	13	14	15	뮤지컬 <반개맨의 비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VIP석 5만5천원, R석 4만4천원, S석 3만3천원 ☎02-507-7115 조윤숙 독창회 <하늘의 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2만원 ☎조윤숙 010-7730-7381
뮤지컬 <반개맨의 비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VIP석 5만5천원, R석 4만4천원, S석 3만3천원 ☎02-507-7115 가야금 더하기 <현악의 만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 전석 5천원 ☎인물스트림앙상블 032-888-0808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6회 정기연주회 Beautif. Mozart의 '봄의 향기',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전석 3천원 ☎032-507-5996 신시몬에타 브람치콘서트 '11시에 만나요' 중구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11시 / 7천원 ☎032-760-6403	플루트앙상블 'Beautif. Mozart의 '봄의 향기',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전석 3천원 ☎032-507-5996 신시몬에타 브람치콘서트 '11시에 만나요' 중구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11시 / 7천원 ☎032-760-6403	밴드 데이 I <잠미여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2만원 ☎032-507-5996 화이트데이 <아기자기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만원 032/500-2000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6회 정기연주회 Beautif. Mozart의 '봄의 향기',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전석 3천원 ☎032-507-5996 신시몬에타 브람치콘서트 '11시에 만나요' 중구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11시 / 7천원 ☎032-760-6403	뮤지컬 <마법의 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1시 / 전석 2만원 ☎032-507-5996 재난안전교육 뮤지컬 '간접충돌 배보배'배 서구문화회관 오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5천원 ☎010-6757-1948 연극 '거기 누구요'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3천원 ☎032-505-5995	브라이언 크레인 힐링콘서트 '사랑, 봄의 이야기' 인천해상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오후 4시 / 6천원, 학생 무료 ☎032-760-3457 부평역사박물관 개관기념음악회 오후 2시 / 부평역사박물관 / 무료 ☎신시몬에타 032-834-1055
콘서트708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 R석 8만8천원, S석 8만6천원 ☎(주)엔터테인먼트 1588-234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6회 정기연주회 Beautif. Mozart의 '봄의 향기', 부개문화사랑방 오후 7시 / 전석 3천원 ☎032-507-5996 신시몬에타 브람치콘서트 '11시에 만나요' 중구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11시 / 7천원 ☎032-760-6403	환경뮤지컬 '나쁜해 박사과 지구수비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오후 10시 20분, 11시 20분 1만 5천원, 단체 1만원 ☎보물상자 032-819-1002 인사음악소품 '신동 모차르트, 유쾌한 하이든' 북한문화공간 아트를 소품 오후 7시 / 1만 5천원 ☎032-834-1055	커피콘서트 I '피아니스트 김경원이 전하는 봄의 선율-바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TBN 인천교통방송과 함께하는 '토콘서트' 공개방송 송도 트라이볼 / 오후 4시 / 무료 ☎인천아트플랫폼 032/760-1014	뮤지컬 <마법의 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1시 / 전석 2만원 ☎032-507-5996 재난안전교육 뮤지컬 '간접충돌 배보배'배 서구문화회관 오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5천원 ☎010-6757-1948 연극 '거기 누구요'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3천원 ☎032-505-5995	뮤지컬 <반개맨의 비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VIP석 5만5천원, R석 4만4천원, S석 3만3천원 ☎02-507-7115 조윤숙 독창회 <하늘의 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2만원 ☎조윤숙 010-7730-7381
뮤지컬 <천정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극단 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마법의 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 / 전석 2만원 ☎극단유우 02-359-7640	뮤지컬 <달콤이와 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 ☎극단상상 010-6757-1948	뮤지컬 <달콤이와 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 ☎극단상상 010-6757-1948 신시몬에타 브람치콘서트 '11시에 만나요' 중구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11시 / 7천원 ☎032-760-6403	뮤지컬 <달콤이와 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 ☎극단상상 010-6757-1948	뮤지컬 <달콤이와 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 ☎극단상상 010-6757-1948	뮤지컬 <셜록홈즈-앤더슨가의 비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 R석 6만원, S석 5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66-6551 글로벌TV개국기념 시민초청무용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주)글로벌매뉴 032-623-7456	뮤지컬 <셜록홈즈-앤더슨가의 비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 R석 6만원, S석 5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66-6551 서해대 꿈이 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일반 3만원, 장애인 1만원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 032-440-8318
뮤지컬 <천정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극단 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마법의 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 / 전석 2만원 ☎극단유우 02-359-7640	뮤지컬 <달콤이와 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 ☎극단상상 010-6757-1948	뮤지컬 <달콤이와 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 ☎극단상상 010-6757-1948 신시몬에타 브람치콘서트 '11시에 만나요' 중구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11시 / 7천원 ☎032-760-6403	뮤지컬 <달콤이와 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 ☎극단상상 010-6757-1948	뮤지컬 <달콤이와 모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 ☎극단상상 010-6757-1948	뮤지컬 <셜록홈즈-앤더슨가의 비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 R석 6만원, S석 5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66-6551 글로벌TV개국기념 시민초청무용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주)글로벌매뉴 032-623-7456	뮤지컬 <셜록홈즈-앤더슨가의 비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 R석 6만원, S석 5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66-6551 서해대 꿈이 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일반 3만원, 장애인 1만원 ☎사단법인 꿈꾸는 마을 032-440-8318



3월 22일  
연극 '거기 누구요'



누구의

## 전사통지서를 받은 것일까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인천시청 앨범 발췌



**멀**리, 월남(베트남)이란 나라에서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월남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파병을 결정했다. 1964년 9월 11일 제1이동외과병원(130명)과 태권도 교관단(10명)이 해군 LST편으로 부산항을 출발했다.

이듬해 월남 정부의 추가 파병 요청에 따라 공병대대, 경비대대, 수송중대 등으로 구성된 비둘기부대가 1965년 3월 10일 인천항을 떠났다. 이후 실질적인 전투 병력인 맹호부대가 미국함대 ‘베이 월드’호 등에 분승해 인천항 출발하는 것을 시작해 십자성부대, 백마부대, 백구부대, 청룡부대 등이 속속 월남전에 뛰어 들었다.

1964년부터 73년까지 약 9년간 31만3천명이 파병되었다. 동네마다 한두 명의 젊은이가 월남에 피병돼 베트남과 싸웠다. 몇 달 후 파병된 삼촌과 아들은 고향집에 미제 라디오나 소형 TV를 소포로 보냈다. 이것을 받은 집은 동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곳곳에서 곡(哭)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편지, 소포 대신 전사통지서가 도착한 것이다. 월남전쟁에서 전사한 우리나라 군인은 5천명에 이른다. 그들의 핏값은 값졌다. 전사자들의 피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불씨가 되었다.

사진1은 1966년 인천시청 관료가 조의품으로 쌀 한 가마니를 갖고 월남 참전 전사자의 초상집을 찾은 모습이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으로 보아 전사자는 분명 식구들을 위해 자원해서 전장(戰場)

에 뛰어 들었으리라. 상주인 듯한 형과 누이들은 슬픔에 겨워 차마 카메라와 시선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

월남전이 서서히 종전으로 접어들자 ‘파이한’ 부대들은 하나둘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정부에서는 ‘월남에서 돌아 온 새까만 김 상사’들을 개선장군처럼 대우하며 열렬히 환영했다. 사진2는 1970년 동인천에서 답동사거리까지 인천 출신 파병 군인들의 귀국 환영 카퍼레이드 장면이다.

1899년 경인철도가 놓인 이래 66년 동안 철마는 외길로 다녔다. 단선(單線)이었기 때문에 기차가 마주치면 한쪽에서 기다려 줘야 했다. 복선 공사는 일제강점기에 꾸준히 시도되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1965년 9월 18일 동인천역에서 영등포역까지 26.7km 구간이 복선(複線)으로 개통되었다. 6·25 동란 전에 이미 복선 노반이 돼있어 1년이면 완성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결국 시간이 많이 흘러서야 복선이 되었다.

복선 개통일인 1965년 9월 18일자 동아일보 기



1 월남 파병 전사자 초상집을 찾은 인천시 관료(1966년) 2 월남에서 돌아 온 파병 군인들이 귀국 환영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1970년) 3 경인선 복선 개통 축하 시승을 하고 인천역에 도착한 박정희 대통령(1965년) 4 인천역 플랫폼에 세워진 시민 염원 현수막(1965년) 5 일명 ‘동차’가 송림위생처리장에 인분을 쏟아내고 있다(1972년)



사이다. ‘인천은 우리 이수(里數)로 불과 80리길, 요즘으로 말하면 38.9km으로 분명 대(大) 서울의 ‘작은 집’ 위치에 있다. 언젠가 멀지 않은 장래에 경인선은 전철화 되고야 말 것을 예상한다면 지금의 복선 개통은 그 전주곡에 지나지 못한다. 근대 공업화 계획에 따라 경인간 주민들은 불가불 ‘한술의 밥’을 안 먹을 수 없게 된 것도 필지의 사실이다.’

현재의 경인선은 전철화는 물론 ‘따따블’ 복복선이다. 당시의 기사처럼 경인선 덕분에 인천과 서울 시민들은 ‘한술밥’을 매일 먹고 있다. 사진3은 복선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열차를 타고 인천역에 도착한 장면이다.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유승원씨가 플랫폼에서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4는 플랫폼 부근에 세운 인천시민의 염원 현수막이다. ‘박대통령 각하, 경인선 개통 다음 과제는 인천항 제2 독크의 축조공사입니다’ ‘부평수출산업공단 조성은 전 인천시민의 숙원입니다.’ 간절함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이후 두 사업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요**즘 골목에서 사라진 소리 한마디. “똥 퍼!” 그 외침은 꼭 밥 먹을 때 들렸다. 엄마는 손가락을 급히 내려놓고 뛰쳐나가 아저씨를 불러 세우신다. 식구들은 밥 다 먹은 순서대로 변소 앞에 나가 코를

쥘고 쭈그리고 앉아 땅에 금을 긋는다. 지게 하나에 한 줄. 이번 달은 왜 이렇게 금이 많이 그려지지. 엄마와 아저씨는 똥통의 숫자로 또 실랑이를 벌인다.

사진5는 1972년 서구 연희동 분뇨처리장의 모습이다. 당시 이곳에서 처리되는 분뇨는 극히 일부분. 나머지는 그냥 바다나 인근 밭에 뿌려졌다. 그래서인가 인천에는 똥바다, 똥고개로 불리는 동네가 많았다. 1977년 인천시 최초로 현대식으로 인분을 처리하는 송림위생처리장이 세워졌고 약 30년 동안 인천의 ‘항문(肛門)’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몇 년 전에 처리장은 없어졌고 그 자리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국제배구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분뇨를 처리하던 그곳에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 강스파이크를 날릴 날이 머지 않았다.

인천(仁川)이란 이름을 얻은 지 올해로 꼭 600년이 된다. 빛바랜 과거 사진을 통해 인천의 현재를 가능해보며 미래를 그려 본다. 이 지면에는 1960년대와 70년대 이른바 인천의 ‘산업화’ 시절 사진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그 속에 땀 흘리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코 흘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송시장, 친선 증진 공로 푸틴에 훈장 받아

송영길 시장이 정현 러시아 명예총영사와 함께 지난달 8일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각종 우호교류를 이어오면서 양국의 친선 증진에 공헌한 점이 인정됐다. 우리시는 그동안 연안부두 인근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을 조성하고, 러시아의 요청대로



러시아 군함 바라그호의 깃발 대여를 연장해주는 등 러시아와 교류 관계를 이어왔다. 시는 블라디보스토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우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모스크바에 머문 송 시장은 알렉세이 크바소프 녹색기후기금(GCF) 이사를 만나 GCF사무국 유치 당시 보내 준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둘은 러시아 국영·대기업과 한국의 대기업이 GCF에 기금을 많이 보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송 시장은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과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문화부 장관을 만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국립음악원 분교를 송도국제도시에 설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설득했다.

문의 : 국제협력관 ☎440-3232

## 인천으로 기업들이 몰려온다

인천지역에 둠지를 트는 국내외 기업이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신규 신설된 제조업체는 2010년 1천206개, 2011년 1천225개, 2012년 1천13개로 모두 3천44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3년간 이전 폐업(2천549개) 대비 895개 제조업체가 추가 신설된 수치다.

기존 제조업체와 신규 업체가 포함된 지난해 인천지역 등록 제조업체(면적 500㎡ 이상)수는 9천872개로 2010년(9천255개)에 비해 617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1%의 증감률을 보이던 지난 2010년에 이어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4.5%, 2% 제조업체가 늘었다.

시는 지역 내 제조업체가 많아진 원인으로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유치를 꼽았다.

인천지역에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이 잇따라 진출하면서 지난해 외국인들이 투자한 금액은 모두 31억82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12월 송도에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 공장을 착공한 동아제약은 올해 말부터 의약품 생산할 예정이다. 또 지난 13일에는 세포배양배지 제조업체인 아지노모도제넥신(주)이 송도에 들어오기로 해 바이오산업 원료의 국산화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 외에도 10억달러를 투입해 차세대 반도체 제조 및 연구센터를 송도에 건립할 예정인 엔코 테크놀로지는 올해 하반기에 공장을 착공하고, 역시 반도체 관련 업체인 TOK는 올해 6월 생산시설 공장을 준공한다.

청라에는 전기자동차 부품개발 연구, 시험생산시설인 엘지 브이엔에스가 이달 준공하며 하나금융그룹은 2016년 상반기까지 목표

로 본사, 연구소, 인재개발원 등을 지을 계획이다.

문의 :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440-3287

## 5월 한-중 크루즈 의료관광상품 출시

오는 5월 1일 중국 텐진~인천 간 정기 크루즈(5만급) 취항에 맞춰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크루즈 의료관광 상품이 첫선을 보인다.

인천 의료관광재단이 선보일 크루즈 의료관광은 인천도시공사가 중국의 HENNA 크루즈 선사, 롯데관광(주)과 함께 관광과 의료의 특성을 크루즈 상품 특성에 맞게 국내 최초로 개발한 상품이다. 크루즈 여행객들은 여행기간에 기항지인 인천에서 빨리 건강을 알아보는 '건강체크'와 CT, MRI, PET-CT를 이용해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취항 첫달 인천~텐진을 다니며 오는 6월부터 인천~여수~제주~텐진~다렌 항로로 노선을 확장할 예정이다.

문의 : 인천의료관광재단 ☎260-3100



##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우리시가 '2013년 시청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한 6대 분야 49개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이번 시책에는 모든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 공개,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행동강령 교육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됐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친절·불친절 공무원 제보 코너운영, 전직원 친절도 자기진단실시, 민원업무 해피콜 실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 산하 10개 군·구와 공사·공단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정책 보고회를 개최해 인천지역 공공기관 청렴도가 동반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시는 전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부문에서 각각 전국 1위, 외부청렴도 7위를 했으나, 징계자 감점으로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7위를 기록한 바 있다.

문의 : 시 감사관실 ☎440-3183



## 응급의료 전용헬기 연평도까지 확대 운항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 운항이 웅진군 연평도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북한의 광명성 로켓 발사 등 정세 불안으로 서해 북단에 위치한 연평도까지 닥터헬기를 운항하는 계획이 보류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군과 함께 닥터헬기 훈련을 마치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달 4일부터 운항을 시작하게 됐다.

연평도는 접전지역으로 군 절차에 따라 서쪽으로 우회해 연평도까지 160km 운항하고 의료진은 원칙적으로 1명 탑승하지만,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탑승 의료진은 늘어날 수 있다.

대연평도는 연평중합운동장과 해병 헬기장 2곳을, 소연평도는 군헬기장 1곳을 이용한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닥터헬기 도입 이후 후송 환자는 뇌출혈 50명, 심장질환 27명 등 177명이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440-2735

## 상수도 요금 평균 4.9% 인상

상수도사업본부는 5년간 동결했던 수도요금을 오는 4월부터 4.9% 인상 적용한다.



시의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지난 2001~2011까지 739억원의 누적 결함액이 발생하는 등 수도요금이 생산원가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4.9% 원수료 인상 강행과 지난해부터 세 차례 걸쳐 진행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료 26%인상으로 49억원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해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잇단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요즘 부득이하게 수도요금까지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720-2042

## 구제역·AI 등 가축방역사업에 20억원 투입

우리시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가축방역사업에 총 20억 여원을 투입, 강도 높은 차단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인 시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 5억6천만원,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및 매몰지 사후관리 4억8천만원, 소독차량 및 장비지원 8천만원, 브루셀라와 광우병 등 전염병 검사 및 검진에 2억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라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 등의 운반차량과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은 관할 군·구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차량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문의 : 시 농축산유통과 ☎440-4394





## 문의 : 일자리창출과 ☎440-4233

## 문의 : 인천국제교류센터 ☎451-1733

## 문의 : 인천항만공사 ☎890-8000

## 문의 : 시 보건정책과 ☎440-2724

## 문의 : 강화군청 ☎930-4332

## 문의 : 주거환경정책관실 ☎440-3457

##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440-2933



## 문의 :아라뱃길 콜센터 ☎1899-3650



###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월 24일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의원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구재웅)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 신청에는 '사회책임조달 연구회'(이재병 의원 외 3명), '협동조합 연구모임'(강병수 의원 외 3명), '녹색거버넌스 연구모임'(이한구 의원 외 4명), '시민 밀착사업 연구포럼'(홍성욱 의원 외 3명) 등 4건이다. 심의위원회는 한정된 경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제출된 연구목적대로 결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시의원 전체의 36%가 11월 말까지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더불어 심의위원들은 수년 동안 연구단체 구성 실적이 없었던 의회가 이처럼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연구과제로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생산적인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성만 의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장 취임

인천광역시의회 이성만 의장이 지난달 13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인구 보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인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정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인구복지협회 인천지회는 사무국, 가족보건의원, 노인복지센터 등에 총76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저 출산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인천운동본부”와 임신부 교실운영, 학생대상 인구교육 실시, 아기사랑 후원사업과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운동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원안 의결

인천광역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인천도시철도 조기개통 국비지원 건의안’이 지난달 1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조사특위는 본 건의안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천지역 7대 핵심공약과 10대 추진과제로 약속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과 ‘제3연륙교 건설 촉진 지원’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우선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또 제3연륙교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개발 등 LH공사 관련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인천 서북부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반시설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사특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제3연륙교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제18대 대통령후보 공약과 추진과제로 반영했고, 이번 건의안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직접 전달하여 새정부 출범시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경제 전망’ 의원 교육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일(금) 14시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제관련 부서 관계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경제의 전망’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는 서울대 명예교수이며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인 경제학 박사 김수행 교수가 강의했다. 강의 내용은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의 근본적 출발점부터 금융공황이 국가의 채무 위기를 야기시키고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경제 민주화와 국가적 적대관계 해소 등에 대해 강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국 경제의 전망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경제 관련 전문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의정 활동도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정책을 마련하고자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표명했다.



### 120 미추홀콜센터 직원 격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120 미추홀콜센터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 받고 직원들을 위로 격려했다. 이성만 의장은 지난달 6일 설 연휴대책 특별운영 상황을 둘러 본 자리에서 “설 연휴를 맞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궁금한 점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상황근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새정부 인수위에 인천시 현안 전달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시의 주요현안 사항을 새정부의 국정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대표하여 지난달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과 안병배 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제3연륙교 조기착공과 인천도시철도 조기개통 국비지원 건의문’과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본 건의문은 지난달 1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천지역 7대 핵심공약과 10대 추진과제로 약속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과 ‘제3연륙교 건설 촉진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미군폭격으로 희생된 관련 주민들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학력향상 선도학교 중간평가 보고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6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교육의원 및 인천시의원, 시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학력향상 선도학교 중간평가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성만 의장을 비롯한 김영태 교육위원장 등 15명의 시의원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학력향상 선도학교 중간평가는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추진 계획 및 전략, 프로그램 운영, 운영 성과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됐고,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향상선도학교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집중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평가다. 10개 학교의 학교별 평가 결과는 인천여고가 ‘탁월’, 인천논현고, 세일고, 부평고, 인천원당고 등 4개교가 ‘우수’, 인천고, 제물포고, 신명여고, 계산고, 가림고 등 5개교가 ‘보통’이었다. 특히 인천여자고등학교는 3개 영역 중 추진계획 및 전략과 프로그램운영 2개 영역에서 ‘탁월’, 운영 성과면에서는 ‘우수’평가를 받아 학력향상선도학교 중 최우수학교로 평가됐다. 그러나 평가위원의 학교계획 및 역량에 적합한 예산의 차등 지원, 새로운 교육모델 창출 가능성 증대를 위한 추가 선발 및 지정, 지속적 운영 가능한 정규교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언했다. 또 우수학교 및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선도학교의 추가지정 등 시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며 향후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남겼다.

### 적십자사에 특별회비 전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의회접견실에서 한적인천지사 황규철 회장에서 적십자가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성만 의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적십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며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적십자가 더욱 활발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o+box

울목도서관 3월 문화행사

울목도서관은 춘삼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고 싶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1기 정규 문화프로그램〉

일시 : 3월 12일(화)~6월 28일(금)

주요내용

프로그램명	내 용	대 상	정 원	일 시	회 차
엄마랑 책놀이	그림책 구연 후 관련 활동을 엄마와 함께 직접 해보는 독후활동 시간	3~4세 유아와 엄마	10팀 (20명)	매주 금 2시~3시	8회
유아영어동화	영어동화 스토리텔링 후 관련 동요를 따라 부르고 공작놀이까지 해보는 시간	6~7세 유아	20명	매주 수 4시~5시	12회
책이랑 놀이랑	책 속의 내용을 미술, 공작 등 다양한 장르와 접목하여 창의력 및 사고력을 높여주는 독후활동 시간	1~2학년 초등학교생	10명	매주 목 3시~4시	10회
힐링리딩 (Healing Reading)	책을 통해 고민과 걱정을 덜어내고 마음을 치유하는 독서치료 시간	3~6학년 초등학교생	10명	매주 금 4시~6시	12회
우리들의 영화, 소설을 삼키다	소설 속 주인공들을 빌려 나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어보는 시간 ※다과 및 제작노트 제공, 상영회 개최	1학년 고등학교생	10명	매주 토 11시~2시	17회
성인동화구연 지도자양성과정	책을 효과적으로 읽고 전달해주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읽어주는 활동을 통해 이론과 실습 병행 ※희망자가 있을시 동아리 및 자원활동가로 구성 가능	20세 이상 성인	15명	매주 수 10시~12시	12회

접수기간 : 2월 19일(화)~3월 10일(일)

참가비 : 무료

문 의 : 770-3804, 3812

〈인문학 강좌〉

제목 : 2013년도 도시인문학강좌 [근대도시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묻다]

일시 : 3월 30일(토) 오전 10시

주요내용 : 인천의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보전과 활용

강연자 : 배성수(인천시립박물관)

관람료 : 무료

주최/주관 : 인천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인천광역시 울목도서관

문의 : 770-380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훈련생 모집

인천여성취업센터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교육훈련과 '내 일(my job)찾기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인천여성 ‘내 일(my job)찾기’ 설명회

일시 : 3월 13일(수) 13:30~17:00

장소 : 남동구청 7층 소강당

행사내용 : 취업성공전략특강, 2013년 교육훈련모집과정 직종설명, 취업상담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훈련생 모집과정

개강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3.18(월)	무역실무자 양성과정	월~금 09:30~13:30 <52일/210시간>	초 대졸이상 미 취업여성 및 남성 24명 (베이비부머세대, 영세자영업자30%)
3.25(월)	HACCP 전문관리사 양성과정	월~금 09:30~13:30 <36일/144시간>	미취업여성20명 (베이비부머세대, 영세자영업자40%)
3.25(월)	미래신직업 장례지도사 양성과정	월~금 09:00~16:00 <50일/300시간>	미취업 여성 20명 (베이비부머세대, 영세자영업자70%)
4. 3(수)	전통음식전문가 양성과정	월~금 14:00~16:00 <30일/120시간>	미취업 여성 20명 (베이비부머세대, 영세자영업자75%)
4. 8(월)	관세사무원 양성과정	월~금 09:30~13:30 <50일/200시간>	미취업 여성 24명 (베이비부머세대, 영세자영업자30%)
5. 6(월)	공부방창업과정	월~금 14:00~16:00 <52일/208시간>	미취업 여성 20명 (베이비부머세대, 영세자영업자75%)

문의 : 260-3603 www.iwwc.or.kr

노동·생활법률 무료상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인천상담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동,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이혼 등 생활속의 법률구조가 필요한 분들의 적극적인 방문을 기다린다.

노동법관련 일체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서류 작성 등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고소, 고발 구제신청 상담

산업재해, 최저임금, 비정규직등에 대한 관련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일반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법률 관련 상담 및 무료 서류 작성 등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이혼, 양육, 상속, 교통사고 등

시간 : 월~금(오전 9시~오후 6시)

방법 :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상담가능

문의 : 515-4881, 팩 스 516-4881

Info+box

‘청소년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인천광역시 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줄 ‘서포터즈 3기 단원’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활동내용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 진행보조

센터 업무 보조 및 프로그램 자료제작

인천광역시청소년진로지원센터 홍보활동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 관련 제언 및 평가

활동기간 : 2월~12월 (10개월) (화,수,목,금,토 활동)

활동혜택 및 특전

서포터즈 임명장 & 신분증 발급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VMS 등록관리

심리검사 기회제공(STRONG직업흥미검사)

활동우수자 시상

2년 연속 활동단원 직원 채용 시, 가산점, 추천서 혜택

지원 자격

청소년(진로)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휴학생  
서포터즈 운영회의에 매달(월 1회) 참석이 가능한 자  
한달에 1번 이상 센터보조업무, 프로그램 참여 가능자

문의 : 762-5642, 이메일 icjob@hanmail.net

여성창업기업 모집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참신하고 유망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여성 CEO에게 사무실을 지원하고자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황

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층

모집기업 : ○개, 모집기간 : 3월 29일(금)까지

지원대상

여성기업 자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 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사업 분야 : 제조, 신기술, R&D, 디자인 분야 등

제조업은 공해, 소음 등의 유발이 없고, 소규모 사무실에서 도 창업준비가 적합한 경우에는 가능

입주 공간 및 입주조건

입주공간 : 23㎡~66㎡(실별로 상이함)

입주기간 : 최대 2년(1년 단위로 재계약)

예치금 : 1사당 3백만원, 관리비 : 실비 정산

문 의 : 260-3600~2, 팩스 260-3609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설명회·참가자 모집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설명회 및 참가자를 모집한다. 관심있는 청소년,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설명회

일시 : 3월 9일 (토) 14:00~15:30

장소 : 연수구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

대상 : 연수구 지역 청소년, 부모님

내용 : 수련관 소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설명, 질의응답, 면담, 신청자 접수

포상활동 참가자 모집

모집대상 : 연수구 지역 청소년 만 14~25세, 15명

신청기간 : 3월 9일~16일(8일간)

활동기간 : 4월~12월(연중 매주 토요일)

활동내용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동장활동(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활동)

기타사항 : 포상제 입회비(2만원), 탐험활동 참가비(추후공지)

문의 : 833-2010

유동훈작가 ‘어떤마을’사진전

사진전문갤러리 배다리에서는 3월 기획초대전 유동훈 작가의 ‘어떤마을’ 전시를 연다. 올해는 인천지역의 사진가와 신인사진가 중심으로 전시계획을 잡았고 첫 번째로 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제목 : 유동훈사진전 ‘어떤마을’ 일시 : 3월 13일까지

장소 : 사진공간 배다리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개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과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공동기획한 2013년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상반기과정이 3월부터 시작한다.

강좌명 : 2013년도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상반기과정

기간 : 3월 19일~6월 25일(총 8강, 격주 화요일), 14:00~16:00

주제 : ‘문학 속의 인천, 인천의 문학’

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대상 : 20세 이상 성인 140명(무료공개강좌)

신청방법 : 박물관 홈페이지(museum.incheon.go.kr)선착순 접수

신청기간 : 3월 17일(일)까지

문의 : 440-6734

Info+box

‘해찬나래 신입생’이 되어 주세요

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해찬나래 신입생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대상** : 중학교 1~2학년, **운영기간** : 1월~12월  
**운영시간** : 월~금 오후4시~8시 30분, 매주 토요일  
**참가비** : 전액무료(교재비 본인부담)  
**내용** : 학습지원과정, 주중특기적성과정, 생활지원, 주말체험 등

시간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자기주도	자기주도	자기주도	자기주도	자기주도	2013년 특성화 프로그램
2교시	동아리활동	학습보충	국어	자치활동	영어학습 프로그램	
3교시	급식					
4교시	모듬북 우쿨렐레	영어	국어	수학	체육/미술	자연힐링 체험활동
5교시	방송댄스	수학	과학	영어	체육/미술	

문의 : 777-7942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장학금 신청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했거나, 중증장애를 얻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다양한 생계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3~4월에 진행하는 장학금 신청에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

- 부모님이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장애등급 손해배상법1~4급(또는 보건복지법 2급 3호를 제외한 2급 이상) 가정
- 초·중·고 재학중인 유자녀 및 본인
- 생활형편이 국민최저생계비(아래표 참고) 이하이며, 부동산 소유재산이 공시지가 90,000,000원(지방84,000,000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지원금액

지 원 구 분		지 원 금 액	지급시기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4월,5월,10월,11월말일
	중 학 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지원서교부 및 접수

신청기간 : 3월~4월, 9월~10월(연 2회 접수)  
(※ 장학금 접수는 통화급증으로 서류검토의 어려움 있어 4월은 20일까지 상담 만료)  
문의 : 833-6700

2013, 2014 공정선거관리인단 모집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2014년도 공정선거관리인단을 모집한다. 선거업무에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모집인원** : 선거관리위원회별 1~2명  
**근무기간** : 4월 1일~12월 31일, 주 5일(1일 8시간) 근무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등

**응모기간** : 3월 8일까지

**문의** : 424-1390

3월 미추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미추홀도서관은 3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문의
인 형 극 『아기돼지 삼형제』	3월 23일(토) 14:00	전체	440-6662~4
이상이 작가전 (한국화)	3월 20일(수)~4월 7일(일)	-	440-6643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문의
북스타트 아기 천사들의 목(木)소리	3월 28일(목) 11:00	인천시 2012년 출생영아, 만18개월 영유아 및 부모	440-6647~8
미추홀 영화 상영	매주 토·일 14:00	-	440-6641~2
꿈나무터 극장	매주 화요일 16:00	4세~초등 5학년	440-6647~8
책마중(관외예약 대출·반납)서비스	24시간 대출·반납	미추홀도서관 회원(타관 회원→등록 후 이용가능)	440-6634~5

100여 년만에 바뀐 인감제도! 도장대신 서명으로

100여 년만에 인감제도가 바뀐다. 도장에서 서명으로 바뀌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시행한다.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한 후 발급받으면 된다.

**시행시기** : 2012년 12월 1일 부터

**발급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발급절차**

**발급사실 확인** :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문서확인번호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수수료** : 600원(통)

**문의** : 440-2333

Info+box

상상공작소 운영 대학생 멘토 모집

인천시립박물관은 2013년 청소년 교육프로젝트 상상공작소를 함께 운영할 제2기 대학생 멘토를 모집한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청소년 또는 박물관 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모집기간** : 3월 17일(일) 24시까지

**모집인원** : 8명

**지원자격** : 인천 거주자 혹은 인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교직이수, 박물관 관련학과(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인류학, 서지학, 자연사, 과학사, 박물관학, 역사학, 교육학, 보존과학, 미술학과), 문화재콘텐츠학과 등 우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8월~9월) 6주간 매주 토요일 참석이 가능한 자

**활동기간** : 4월~9월(6개월)

**활동내용** : 청소년 교육프로젝트 상상공작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조  
**문의** : 440-6749

만인의 섬 굴업도

이희환 지음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사람과 터전’ 대표로 시민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이희환 씨(47)가 웅진군 굴업도의 굴곡진 역사와 어민 수난사를 담은 ‘만인의 섬 굴업도’를 최근 발간했다. 옛 문헌에 기록된 구로읍도(鷗鷺泣島)는 나라를 잃은 고려 유신들이 스스로를 유배시켰던 섬으로 알려져 있다. 1920년대의 굴업도는 민어와 조기를 잡은 어선 1천 여 척이 몰려 대규모 파시(波市)를 열 정도로 어업의 중심지였다. 1923년 8월 초대형 태풍이 몰아쳐 수많은 어선이 큰 피해를 봤다. 이같은 굴업도가 다시 세간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94년 정부가 핵폐기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1년간에 걸친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을 통해 핵폐기장 건설이 철회됐다. 2006년에는 국내 대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가 섬의 98.5%를 매입해 대규모 골프장 건설 등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책에서 저자는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사를 간직한 굴업도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이 책이 굴업도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작가들 펴냄, 151쪽, 1만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동구청소년수련관은 3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 인 신청을 바란다.

프로그램	내용	일시	대상	신청방법
인천희망 오케스트라 (참가비 무료)	• 악기를 통한 청소년 활동 • 현악기 중심(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으로 개인별 연습지도 • 초보신청가능, 1인1악기 대여	• <b>활동일시</b> : 4월 ~12월 매월1,2,3주 토요일(한달에 3회 활동) 오후3시~5시 • <b>모집기간</b> : 수시 선착순모집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3학년인 청소년	777-7942 (안내1, 204)
동구 청소년 합창단 'The VOICE' 단원모집 (참가비 무료)	•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삶의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 <b>활동혜택</b> : 음악전문가의 지도, 음악회 관람, 찾아가는 음악회, 활동 참여를 통한 봉사활동시간 부여	• <b>활동일시</b> : 2,4주 토요일 2시간 활동 • <b>모집기간</b> : 2~3월 중 선착순모집	중·고등학교 생	761-1318 (202)
신규 동아리 모집	• 무엇이든 좋아요! 친구들끼리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b>활동혜택</b> : 활동장소제공, 간식 제공	• <b>활동일시</b> : 추후 논의 • <b>모집일시</b> : 접수 후 3개 선정	중·고등학교 생	761-1318 (20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하세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돕고, 자녀들의 학업증진이 기대된다.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총 400명 2억원

1학기 선발 지급 (4월) : 200명, 1억원(1인 50만원)

2학기 선발 지급(10월) : 200명, 1억원(1인 50만원)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최근학기 이수한 과목별 학업성적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하며  
출신학교장이 추천

**신청기한** : 2월 25일~3월 15일

**장학금 지급일** : 4월 26일(개인 계좌 입금)

※2학기 선발계획 - 8월 중 시행예정

**문의** : 440-2922



# Book



## 스티브 잡스의 이메일박스

마크 밀리안 | 서울문화사 | 2012

소통형 리더를 위한 잡스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이 책은 CNN 기자로 지냈던 마크 밀리언이 공개된 적 없는 스티브 잡스의 이메일과 자신의 자료집에 보관되어 있던 잡스와의 이메일 등을 정리한 것이다. 공식석상에서는 숨겨왔던 감정들을 팬과 주고 받는 이메일에서는 적나라하게 표현했고, 애플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팬에게는 당당하게 그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잡스가 보낸 답변을 통해 우리는 누구보다 인간에 대해 감성적이었던 그의 성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 나우 이즈 쿿

제니 다우님 | 문학동네 | 2012

백혈병에 걸린 열여섯 살 테사의 마지막 몇 개월 동안의 이야기로, 죽음을 앞둔 십대 소녀의 감성과 욕망, 회한과 분노를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4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후, 반복되는 희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던 열여섯 살 테사.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목록을 써내려간다. 가장 친한 친구 조이와 함께 버킷 리스트를 추진하던 테사 앞에 애덤이라는 남자아이가 나타난다.



## 인생해석사전

센다 다쿠야 | 명진출판사 | 2012

서른 살은 여전히 좌절과 방황에 힘들어하는 나이다. 저자 센다 다쿠야는 자신이 20대에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더 단단하고 성숙한 서른이 되기 위한 인생 지침을 제시했다. 저자는 스스로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명한 해석을 내릴 수 있을 때에만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ㄱ~ㅎ’까지 순서대로 성숙한 서른이 되기 위한 단어와 문장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한 뼘 더 자란 스스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살아줘서 고마워요

유해진 | 문학동네 | 2012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운 ‘휴먼다큐 사랑’을 통해 ‘사랑PD’라는 별칭을 얻은 저자가 그동안 만나 온 위대한 사랑과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믿기 힘들 만큼 끈끈한 가족애, 결코 꺾일 줄 모르는 의지와 희망까지 웃음이 보여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 뜨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 세상 여딘가에 진정한 사랑이 꽃피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 추천도서 목록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4

순번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1	독서치료에서의 문학작품 활용	임성관	시간의물레	독서치료를 위한 문학작품의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해준다.
2	천재의 탄생	앤드루 로빈슨	학교재	세상을 놀라게 한 창조적 도약의 비밀
3	김수환 추기경의 친전	차동엽	위즈앤비즈	참 행복에 이르는 묘책을 담은, 추기경의 사랑편지
4	스티브 잡스의 이메일박스	마크 밀리안	서울문화사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던 스티브 잡스의 편지
5	인생해석사전	센다 다쿠야	명진출판사	여전히 서툰고 어설픈 서른에게 전하는 인생 지침서
6	열두 달 숲 관찰일기	강은희	현암사	1년 12달 365일 숲의 변화를 섬세하고 다정한 시선으로 관찰한 생태그림일기
7	육아고민	아카스구 편집부	동해	초보 엄마들의 다양한 육아 고민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가 답해준 내용으로 구성
8	죽기 전에 꼭 들어야 할 팝송 1001	로버트 다이머리, 토니 비스콘티	마로니에북스	한 세기에 달하는 분량의 팝송 중 역대 최고의 음반 1,001가지를 선별하여 소개
9	바로바로 통하는 여행영어	김신애	에스북	저자의 여행 경험을 실려 꼭 필요한 문장만을 골라 담아 알차게 구성
10	나우 이즈 쿿	제니 다우님	문학동네	백혈병에 걸린 열여섯 살 소녀의 마지막 몇 개월 동안의 이야기
11	살아줘서 고마워요	유해진	문학동네	사랑PD가 만난 뜨거운 가슴으로 삶을 껴안은 사람들
12	분존이, 온다	이광재	모시는사람들	조선말의 최대 풍운아였던 전봉준의 일대기를 다룬 문학적 평전

## 시인 오사라



1950년 인천 출생  
1984년 현대문학(수필), 시문학(시) 등단

## 수상

2011 제15회 한국문학예술상 대상  
2007 제10회 미국에피포드문학상 대상  
2004 제8회 한국크리스찬문학상 대상

## 주요저서

수필집 「석화」(1984), 시집 「햇살하나 가슴에 담고」(1989), 「목마른 그대영혼」(1992), 「위대한 침묵」(1995), 「나무의 도시」(1998), 「울림의 노래」(2003), 「마음의 여행」(2006), 「한.영 번역시선집」(2008)

# Incheon Life Story

## 인천 사는 이야기



### 누군가 문 열어주길...

인천아트플랫폼 뒤에는 쇠잔한 마을의 잔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옛 영화를 추억하며, 이 낡은 문은 누군가가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김석환 부평구 부평1동



### 영종도의 아침

영종도 거잠포 선착장에 아침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뱀방울을 흘리는 노부부의 모습이 일출과 함께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임충성 남동구 서창동



### 그 옛날, 월미도 바다

15년 전, 누나가 월미도에서 망둥이를 잡았다고 자랑해서 저도 기대를 갖고 월미도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낚싯대를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푸른 바다가 저를 위로해주었었지요.

정연경 연수구 연수동



### 아빠! 저 건물은 몇층이야?

송도센트럴파크에 아이와 함께 갔습니다. “아빠 저 건물은 몇층이야?”, “아빠랑 함께 세어볼까?” 하나. 둘. 셋...열...스물하나... 동북아트레이드타워가 참 높네요.

박서우 시흥시 하중동



### 멋진 당신!

인천 시내에서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 신호 대기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안전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 하는 모습이 멋지네요.

박경배 서구 석남1동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재래시장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 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홈페이지 (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기 흐르도다 /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줄음이 떠돌아라 / 날카롭게 쪽 뺨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뉘날아라(봄은 고양이로다. 이장희).

나 도도, 고양이다. 시인의 노래처럼 내 몸 전체에 봄이 찾아왔다. 봄은 색깔로 우리 곁에 온다. 바람 한 번에 무채색으로 잠들어 있던 산과 들 그리고 도시가 연초록빛으로 순식간에 색깔을 바꾼다. 햇살에 젖어 푸르고 싱그럽게 빛나기 시작한 인천대공원으로 종종 봄맞이 간다.

그림·글·사진 차지원 일러스트레이터

인천대공원은 자연 공원이다. 관모산과 상아산이 병풍  
드리우듯 감싸 안은 곳을 그냥 담장 쳐서 ‘공원’으로 만든  
것이다. 전체면적 298만4천㎡으로 80%가 숲이다. 다른  
공원과 달리 놀이기구가 없고 인공구조물도 거의 없다. 그것이  
매력이다. 이 공원은 사람들 것이기 전에 동식물이 진정한  
주인이었다. 물까치 · 솔새 · 말뚥가리 · 흰날개해오라기 등  
희귀 새들은 물론 족제비 · 너구리 · 맹꽁이 등 도심공원에서  
만나기 힘든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인천대공원은 언제 찾아도 편안하다. 인천은 물론이고 이웃한 부천과 시흥 주민들까지 많이 찾아온다. 너무 많이 오다보니 한때 다른 도시 주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받는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만큼 인기 있는 공원으로 사계절이 넉넉한 곳이다.

인천은 물론 경인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인 만큼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꾸며져 있다. 특히 4월  
초순에서 중순 무렵이면 대공원 안에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해 상춘객들로 넘쳐난다. 봄에 꽃이 있다면  
여름에는 자연녹지와 나무 그늘이 있고, 가을엔  
관모산의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엔 눈썰매장의  
함성소리가 뜨겁다.

공원 안에는 식물원, 어린이 동물원, 자연생태원,  
사계절 썰매장 등의 즐길거리가 있고  
‘환경미래관’이라는 학습 공간도 있다. 자, 그럼  
호동그랗게 뜬 고양이의 눈으로 공원의 봄을 자세히  
살펴보자.







#### 인천호

공원 한가운데는 호수가 있다. 이 호수의 이름은 '인천호'다. 인천호의 터줏대감 청둥오리와 거위를 가까이서 보려면 관찰데크를 이용하자. 나무로 이루어진 데크가 호수와의 거리를 좁혀준다. 돛자리 위에서 도시락을 먹는 가족, 호수 주변 정자에 앉아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 산책하다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계신 어르신들로 호수 주변이 화기애애하다. 인천호는 인천대공원에서도 꼽히는 인기장소다.

인천대공원에서는 신발을 벗자. 맨발로 고양이 걸음처럼 걸어본다. 공원 정문에서 동물원 방향과 호수가 산책로 등 공원 곳곳에 친환경 흙길 산책로 4.7km가 있다. 흙길은 맨발 지압효과는 물론 여름철 복사열로 인한 도심 열섬화 현상을 막고 가로수에 빗물이 유입돼 수목 생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콘크리트 길거리에서 느끼지 못하던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원래부터 흙길인 곳도 있다. 공원을 가로지르는 장수천 흙길이 있다. 고즈넉한 이 길을 따라 걷는다. 쪼르르르~ 조용히 물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언제, 어디서 물고기가 튀어오를지 모르니! 장수천은 관모산에서 시작되어 소래포구까지 이어진다. 가볍게 터벅터벅 걷는 것만으로도 휴식이다. 걷다가 마주치는 야생동물들은 보~너스!

#### 수목원

공원 속의 공원, 수목원이다. 진정한 휴양림을 만나려면 역시 수목원이다. 인천수목원은 인천시 도서 해안과 육상의 주요 식물종을 모아 놓았다. 휴식과 자연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녹색 공간이다. 수목원 입구에서부터 상쾌한 풀향이 전해온다. 3개 지구, 43개 전시원으로 꾸며진 수목원에서 마음을 정화시킨다. 내가 좋아하는 마타타비도 있네? 여긴 없는 게 없다.



#### 환경미래관

인천의 미래환경을 만날 수 있는 '환경미래관'이다. 자연이 사라진 미래는 재앙이다. 이곳에서라면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인지하고 자연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2층 건물로 이루어진 전시관과 야외체험학습장은 초록빛깔 놀이터가 된다.

대공원은 '바퀴'의 천국이다,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특히 자전거 광장에는 외발자전거, 두발자전거, 2인용, 다인용 등 모든 자전거가 출몰동한다. 특히 광장을 벗어나 인천대공원~장수천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3.7km 길은 환상적이다. 풍부한 녹지대를 품고 있는 대공원, 생태계가 막 깨어난 듯한 장수천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은 살아 움직이는 세포처럼 생동감을 준다. 자전거를 타면서 공원 안에 조성되어 있는 꽃동산도 만나고 설치예술품도 천천히 감상하며 지날 수 있다.



#### 관모산 가는 길

인천대공원과 이어지는 작은 관모산. 관모산을 오르는 길은 메타세콰이어길로 꾸며졌다. 하늘을 향해 쭉~ 뻗은 나무들아, 어디서 왔니? "We're from Europe" 이름이 심상치 않았어... 너희들 덕분에 유럽의 멋진 길을 걷는 것 같구나. 이 길을 따라 20분 정도 걸으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 경사가 평탄해 산책하기에도 좋은 코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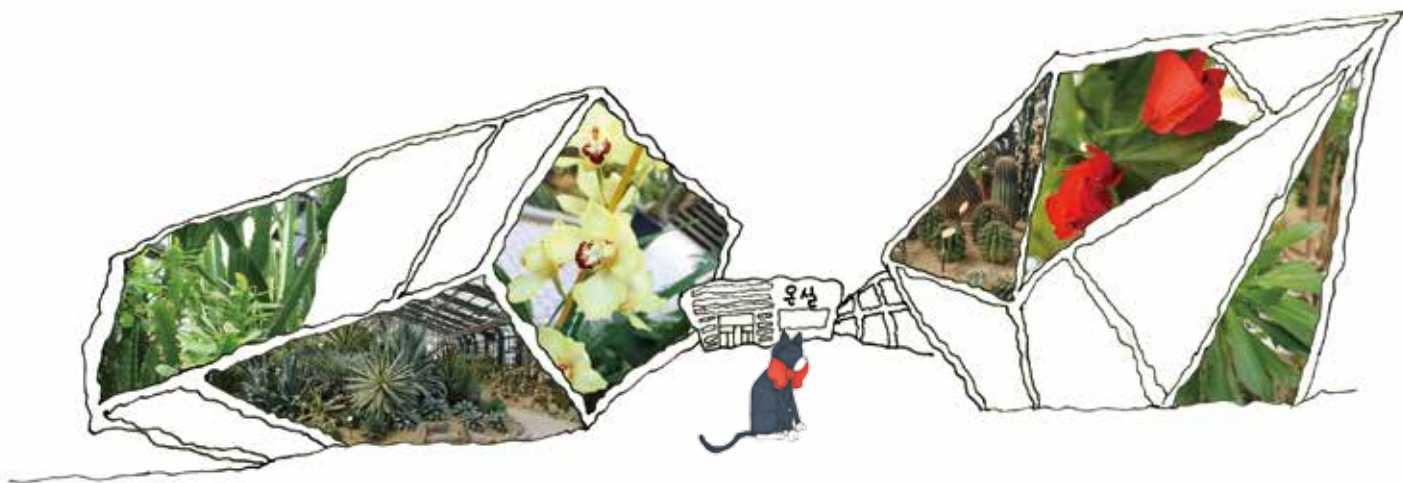




관모산 쪽으로 가면 두 개의 동상이 있다. 백범 김구 선생과 그이 어머니 곽낙원 여사의 동상이다. 아니 왜 인천에 백범 동상이 세워졌을까? 백범과 인천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었다. 백범은 일본 군인 살해사건 등으로 두 차례나 지금의 자유공원 인근인 인천감리서에 투옥돼 모진 고초를 당했다. 그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감옥을 찾았다. 이런 인연으로 그가 서거한 지 48년이 된 1997년 시민 성금 7억여원으로 인천시가 제공한 인천대공원 내 ‘백범광장’을 조성하고 그곳에 동상을 세운 것이다. 잠시 그 앞에서 묵념을 한다.

조각공원

다양한 조각 10여 점을 감상 할 수 있는 곳이다. 푸른 녹지와 파란 하늘을 배경 삼아 이해할 수 있는 듯? 살짝 못하는 듯? 하는 작품들이 곳곳에 있다. 외국 작가가 만든 멋진 작품도 있지만 물론 공짜다. 특히 커다란 나무아저씨는 360도 어디서 봐도 얼굴이다. 아수라백작이 따라올 수가 없겠군.



봄이라지만 아직 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목덜미를 움츠리게 한다. 공원 안에는 꽃샘추위도 당지 않는다는 온실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1온실과 2온실로 나뉜다. 1온실은 ‘열대와 아열대식물 전시원’으로 열대우림처럼 꾸며졌다. 망고, 두리안, 바나나 같은 열대과일나무 사이로 원숭이가 숨어있을 것 같다. 2온실로 가면 빼죽빼죽한 나무들이 빼곡하다. ‘다육식물과 선인장 전시원’이다. ‘선인장에도 꽃이 피네? 앓 따거!’ 에잇, 다가가기엔 너무 먼 ‘인장’씨를 뒤로 하고 발걸음을 돌린다.

어린이동물원

어린이동물원은 대공원 안 후문 놀이터 옆쪽으로 제법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눈길끄는 동물은 우리나라 토종견 풍산개다. 이밖에 원숭이와 꽃사슴, 조랑말 등 포유류 11종 60여 마리와 타조, 공작, 독수리, 앵무새등 조류 31종 150마리가 있다. 위험하지 않은 동물들은 일정 공간에 풀어 놓고 아이들이 먹이도 주고 만져볼 수도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이며 매주 월요일 문을 닫는다.







## 소통이란 단어에 열광하는 까닭

글 장금석 시 소통기획관실 시민소통팀장

언젠가부터 소통(疏通)이란 단어가 화두가 되어버렸다. 리더십이나 조직의 효율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된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무엇이 소통이란 단어에 사람들을 이토록 열광하게 만드는 것일까?

소통이란 말 그대로 ‘트여서 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언뜻 생각하면 그리 대단한 말도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결코 간단치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인간관계가 오래되고 감정계좌에 충분한 신뢰가 적립되어 있다면 모를까, 누군가에게 내 의사를 오해 없이 전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불통으로 생긴 오해는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뢰와 화합을 위해 소통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이것이 소통이 필요한 이유다.

중국 속담에 “갓바치 세 명이면 제갈량을 이긴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소통은 단지 원만한 대인관계나 조직 내 화합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중 하나가 아니다. 소통은 조직 내부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기폭제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 이것이 소통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그렇다면 소통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다. 내 주장만을 앞세우고 상대방의 처지와 조건을 가볍게 치부한다면 소통은 이미 불가능한 과제가 된다. 경청과 배려는 말 그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인내심 있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소통은 일방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내가 상호 Win-Win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소통에는 여러 가지의 특징이 담겨 있다. 구시대적 조직의 의사전달 방식이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방식이라면 소통은 수평적이다. 또한 소통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닌 변화를 위한 실천적 소통이어야 하며 누구나에게 개방적인 특성을 띄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이 공직사회에도 강조되고 있다. 인천시는 소통의 중요성을 앞서 인식하고 소통기획관실을 주도적으로 설치했다. 이러한 인천시의 변화는 타시도와 비교해도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새롭게 신설된 소통기획관실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 갈등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천시의 노력은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폭넓은 시정 추진동력 확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소통은 벽을 문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 봄, 오라이~

버스가 앞 정류장을 막 통과했습니다.

진달래, 노랑나비, 개구리, 파랑새 등을 가득 실은 ‘봄버스’입니다.

연착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고개는 자꾸 멀리 떨어져 있는 앞 정류장 쪽을 향합니다.

버스는 승학산, 계양산, 인천대공원, 월미산 등 인천 곳곳을 거쳐갑니다.

이왕이면 이 ‘봄버스’는

유유자적

여유만만

룰루랄라

완행으로 천천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송현동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